

통성경이 직장선교 동력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남지방경찰청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진석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Jinsuck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ong Bible Reading in the Mobilization of Vocational Mission: A Case Study of K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Christian Association

Jinsuck Lee

Gyeongsangnam-do provincial police-Agency Church

Current Korean protestant churches are in severe danger. Accelerated slowdown and depression of growth of churches and reduction of effect on society demonstrate that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have the hardest time in 130 years. To sort out these problems, I, the researcher, suggest highlight “Vocational mission theology” again as the alternative of the future Korean church ministry. Based on the theology we can build up a Direction of future Korean church and Ecclesiology.

I think Zohbyoungcho’s Tong-Bible can be the very great theological, pastoral, and missional way for “vocational mission theology” as the alternative of the future Korea church ministry. Revival of preaching and maximization of the bible reading through Tong-Bible would be a good method for empowering of vocational mission and recovering of spirituality of declining Korean churches.

I think that the biggest merit of Zohbyoungcho’s Tong-bible is receptivity and expandability in Jesus Christ, who is the good news. Zohbyoungcho’s Tong-bible missional theology expands missional Dimensions ‘Putting the world and the church together’ ‘Putting the Bible and the culture together’ ‘Putting the pastor and the layman together’

Tong-Bible makes all of us have the identity of nations of the kingdom of priests

and the kingdom of god, and demonstrates our home and even office can be the kingdom of God where he reigns over.

Tong-Bible is the most beautiful bridges, which let non-Christian people experience Jesus Christ, participate in salvation of the cross, have an authentic image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nd connect between God and the world, churches and offices that are separated until now. Finally, I think Tong-Bible is the God's gift and the most powerful missional tool accomplishing "Epic life", Leonard Sweet said.

국문초록

통성경이 직장선교 동력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남지방경찰청 사례연구

이진석

경남지방경찰청 교회, 경상남도

현재의 한국 개신교회는 엄청난 교회적 위기에 처해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가속화되는 교회성장의 둔화와 침체, 사회적 영향력의 축소는 한국개신교회 130여년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게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위기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문제의 해법과 대안으로 연구자가 생각한 한국교회 미래목회 대안은 “직장선교신학(Vocational mission Theology)의 재조명”이다. 이런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교회의 방향성과 교회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런 한국교회의 미래적 선교대안인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이 아주 훌륭한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대안이 될수있다고 생각한다. 통성경을 통한 설교의 부흥과 성경통독의 극대화는 한국교회의 쇠퇴하고 있는 영적인 동력을 끌어 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통성경이 한국교회의 선교적 동력화(Empowering)를 이루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의 최대장점을 꼽는다면, 복음 되신 예수 안에서의 ‘포용성(Receptivity)과 확장성(Expandability)’이라고 생각한다. 조병호의 통성경은 ‘세상(직장)과 교회를 통으로’ ‘성경과 문화를 통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를 통으로’ 해석하는 성경적, 선교적 지경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통성경(Tong-Bible)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정과 직장(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과 하나님 나라 선교의 통로(Channel)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통성경(Tong-Bible)은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말하는 에픽인생(Epic life)을 이루는 최고의 선교적 도구이다. 불신자들조차도 복음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경험(Experience)할 수 있게 만들고,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Participation)하게 만들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미지(Image)를 만들게 하고,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직장을 서로 연결(Connection)시켜주는 최고로 아름다운 연결고리(Bridges)이자, 하나님의 선물(God's gift)”이라고 생각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의의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6
논문의 구조	7
II. 노동과 통성경과의 관계성 이해	11
노동을 통한 사명: 구약과 신약	12
노동과 함께하는 사명: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	17
노동과 사명의 통합: 선교신학적 이해	23
III. 통성경을 통한 직장선교의 이해	29
제사장 나라를 통한 통합	35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직장	41
그의 나라와 직장선교와의 통합	47
통성경 (Tong-Bible)이 직장선교 동력화에 미친 영향력 - 포용성과 확장성	49
IV. 프로젝트 실행과정: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의 통성경적용 설문조사 및 평가 59	
설문조사방법	59
설문지분석 및 평가	61

V. 연구프로젝트 결과분석	77
VI. 결론	80
요약 및 평가	80
결론 및 제언	82
부록	87
참고 문헌	105

표 목차

<표 1> 신우회원들의 직장선교회에 관한 필요성 조사	61
<표 2>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가?	62
<표 3> 직장에서 개인영성과 선교활동이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63
<표 4> 개교회 목회자들의 직장선교에 관한 관심도 조사	64
<표 5> 출석교회 설교와 신앙훈련이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65
<표 6> 직장사역이 흠어진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가?	66
<표 7> 직장선교회 성장(활성화)을 위해 가장 강조해야 될 일은?	67
<표 8>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 모임이 잘 활성화 되고 있는가?	68
<표 9> 직장신우회 예배가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가?	69
<표 10> 직장신우회 예배에서 통설교가 개인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70
<표 11> 통독큐티가 성경통독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	71
<표 12> 통성경설교를 통해서 직장선교에 대한 도전과 필요성을 깨닫는가?	72
<표 13-1> 신우회원들이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전도해 본적이 있는가?	74
<표 13-2> 직접 전도한 새신자가 지금 신우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74
<표 14> 직장선교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회들의 역할이 필요한가?	75

감사의 말씀

영적 불모지와 같은 가문에 빛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덧 30여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신앙의 3대를 이루게 하셨고, 그 가운데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부르셔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요, 성경통독의 대가(大家)이신 조병호 박사님을 만나서 통성경신학의 계보(系譜)를 잇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신학적 지식과 학문적 통찰력을 가르쳐주시고, 목회학박사 과정에 가장 중요한 논문작업을 잘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신학과 신앙에 있어 창의적 도전과 가르침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 분 교수님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날 드류 목회학 박사과정 1기를 가능케 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합성감리교회 존경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구동태 감독님과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실 김혜숙 사모님께 감사 드리며, 15년간 함께 울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 노완우 목사님과 정연숙 사모님, 그리고 김태익 목사님, 이영현 전도사님, 노재성 전도사님과 이형진 간사님, 귀한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기쁨의 교회 다음세대인 중고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라는 직장 가운데서도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루어서 직장선교의 비전을 함께 이루며,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경남지방청 신우회와 김해서부서 신우회, 창원서부경찰서 신우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드류목회학 박사과정을 함께 달려온 1기 동기생 귀한 목사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서 가평 통독원과 서울 감신대까지 함께 오고 가며 공부하고, 함께 졸업식까지 동행하게 된 목회의 동역자 고승목 목사님, 강동구 목사님……그리고,

최정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사랑의 빛진 자로서 살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낳아서 길러주시고 목회의 길을 걷는 이 순간까지라도 일편단심 사랑과 희생으로 못한 막내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이균동 집사님과 어머니 임문자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사업을 경영하는 중에도 막내 동생 학비까지 챙겨주신 두 분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사랑하는 꽃송이 현진, 혜진, 건우에게 아빠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살면 사랑하며 배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나의 평생동반자 사랑하는 아내 이인숙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면서,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6. 3월

경남지방경찰청 경목실에서 이진석 올림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

한국에 개신교가 전파된지 130 년이 지났다.¹ 한 세기를 훌쩍 넘긴 한국교회는 이제 성장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시기에 들어가야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성숙이 아닌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회성장의 둔화, 선교열기의 감소, 교회지도자들의 타락 등은 한국교회의 우울한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쇠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복음적인 영성의 회복과 성경적 선교신학의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선교의 개념²은 개인영혼 구원과 개교회 부흥이라는 틀로 전개되어 왔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역에서의

¹ 김칠성, “한국개신교 선교역사의 시작은 언제인가?” 38 *한국교회사학회지* (2014), 181-216. 김칠성은 한국기독교 선교의 기원을 1880년대 한국에 온 선교사들중에 매클레이를 꼽았다. 이는 한국감리교의 초대총리사였던 양주삼이 1884년 매클레이가 고종황제로부터 감리교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의료, 교육, 전도)에 관해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을 기원으로 보고있다.

² 이대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2010), 177. 이대근은 고전적인 선교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회심시키고, 새 교회를 세우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세요소는 1)이방인의 회심 2)교회설립 3)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다.

발생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선교는 상당히 동떨어진 개념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선교는 개인과 개교회(local church)라는 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더 큰 틀에서 선교가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선교가 모든 인종과 문화,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할 때, 마태복음 28 장 19 - 20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예수님의 지상최후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교회선교(local church mission)와 더불어 직장선교(Vocational mission)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회 속에는 수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그 기관들 가운데서 회사, 군대, 병원, 학원, 경찰, 교도소 등이 활발하게 개신교회의 선교지로 개척되었고 지금까지 상당한 결과를 이루어왔다.

사실 지금까지 선교는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라는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교회밖에 있는 조직들은 ‘교회부흥 다음의 선교대상’ 으로 여겨졌던것이다. ‘교회가 성장해야, 다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개교회 이외에 기관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열심을 감소시켜버리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수많은 교인과 직분자들이 각자가 속한 개교회의 예배와 성경공부, 성가대, 교사와 같은 영역에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만남이 있는 직장에서는 제한된 역량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개념자체가 개교회(local

church)를 넘어서, 광범위한 사회조직이나 직장(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회는 두가지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모이는 교회’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³로서의 모습이 모두 중요하다.

교회공동체 구성원들만의 예배와 교제, 양육과 선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예배와 교제, 양육과 선교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연구될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개교회선교가 중요하듯이, 직장선교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사회를, 지역교회와 직장을 통(通)으로 바라보는 통전적 사고(Integrated thinking)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교회와 직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중세, 봉건사회의 편협한 사고는 신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기형적 발전만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다.⁴ 마태복음 5 장 13 절 - 14 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속에는 개교회를 넘어 직장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선교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개교회 선교와 직장선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지지해주는 신학적 제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자는 ‘통성경신학’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은 성경신학뿐만 아니라, 선교신학과 신학방법론에 있어서 의식의 전환과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그가 주장하는 통성경 신학은 “전체와 부분을

³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J.C. Hokendijk는 *The Gathered and Scattered Church*,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에서 세계교회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사도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회가 개인적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명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맥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전도의 주체가 메시아이며, 전도의 목적은 평화의 수립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중요성을 말한다.

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61.

동시에 보는 방법”⁵이다. 또한, 통시적(Diachronic), 통전적(Integrated) 사고를 통해 교회와 직장, 다시 말해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공통적인 선교지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전체와 부분을 통으로 바라보듯이 교회와 직장(세상)을 통(通)”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선교적 관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경남지방경찰청 경목(Chaplain)으로 8년간 직장선교사역을 하면서, 신우회 예배와 성경공부, 다양한 목회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앙과 생활, 지역교회와 직장사이에 선교적 연결고리를 복음안에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통설교와 성경통독훈련이 신우회원들의 개인 영성 개발과 선교동력화(Empowering)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통성경이 성경신학뿐만 아니라, 선교신학 특히 직장선교의 발전에 있어서도 훌륭한 동기부여와 선교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본다. 그래서 지난 8년간의 경찰선교 사역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의의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인구는 4,045만 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438만 명이며, 이중 임금근로자는 1,66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⁶ 전국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의 통계에 의하면, 1200만 명의 직장인중에 기독교인이 약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직장에서

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0.

⁶ 이대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174.

선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약 45 만 명 정도이다.⁷ 다시말해 기독교직장인중 약 15%정도가 직장신우회원으로 직장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 참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우 직장신우회원은 전체에 10%미만에 불과하다. 그만큼 직장선교의 현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⁸

그러면 어떻게 직장선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연구자는 성경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조병호의 통성경적 접근이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조병호의 통성경을 바탕으로 직장신우회 설교의 변화, 성경공부와 성경통독 활성화, 지속적인 큐티생활을 통해 기독교신우회원들의 영성개발과 직장선교 의식을 함양해 나간다면, 지금의 낮은 직장신우회 활동성(Dynamics)이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조병호의 통성경은 단순히 성경신학 발전뿐만 아니라, 선교신학의 측면에서도 통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개념 설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다시말해 기존 교인들의 시야가 주일날만 출석하는 지역교회(local church)의 범주를 뛰어넘어 전체적 교회(Whole church), 우주적 교회(Universal church)로 확대되도록 통성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통성경을 기초로 한 선교신학이 기독교직장인들의 선교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⁷ 이상엽, “직장선교에 관한 연구,” 2 *성서논구* (1994), 220.

⁸ 경남지방경찰청 직원총계는 490명인데, 경찰 394명, 기능직 51명, 보수직 45명해서 총인원이 490명이다. 그 가운데, 기독교직장신우회원은 45명정도되서, 실제비율은 10%미만이다. (2014년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계 통계자료)

본 연구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이 효과적인 선교신학과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한다.

먼저는 “노동(직장)과 통성경과의 관계성”에 대한 성경적, 역사신학적, 선교신학적 이해에 대해 기존연구 문헌과 논문자료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채택한 접근방식을 정리해보면 첫째, 직업(직장선교)에 대한 성경적 개념정리이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직업에 대한 개념들과 함께 특별히 바울사도의 “직업과 소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둘째, 직업(직장선교)에 대한 종교개혁사적 고찰로, 마틴루터나 존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셋째, 직업에 대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직장선교의 중요성과 사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의 핵심인 “A- THE- HIS KINGDOM” (제사장나라-하나님나라-그의나라)의 이야기가 직장선교 동력화(Empowering)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기독교직장인으로 “세상복음화” 선교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원들에게 선포한 통설교를 부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와 제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교라는 포괄적인 개념가운데서 직장선교라는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이 주된 것이지만, 실천적인 방법론에서는 조병호의 통성경, 통성경신학을 활용한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통성경신학에 대한 연구 및 자료의 한계성이 있음을 밝힌다. 오히려, 본 연구를 통해 통성경신학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도록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경남지방경찰청 직장 신우회원들을 중심으로 제한하며, 신우들의 직장선교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담임목사로서의 목회적 평가연구에 중점을 둔다.

넷째, 본 연구는 경남지방경찰청 직장선교 사역기간 가운데 “2015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를 그 연구기간으로 한다.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제 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 II 장에서는 기독교역사와 선교신학 가운데서 직장선교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선교적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직장선교 핵심은 ‘선교는 개인회심, 교회적 성장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능하다’ 는 것이다. 특히 직장신우회 형태로 진행되는 소그룹전도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에 대한 소개와 통성경신학이 직장선교 동력화(Empowering)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교회의 발전사에 있어 성경통독을 통한 영성회복운동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병호의 통성경의 핵심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그의 나라(A-THE-HIS KINGDOM)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조병호의 통성경에 대한 신학적 연구나 개념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연구자가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들에게 선포한 설교 중에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신우회 모임에 대한 헌신도에 영향을 준 설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행과정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원들에게 통설교 및 통독큐티를 적용한 후, 개인적 영성과 신우회 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199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8년간 경남지방경찰청교회를 담임하면서 경찰조직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우들을 직장선교사로 세우는데 목회의 본질과 열정을 다하였다. 하지만 직장선교라는 것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초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감하고 있다.

그러던중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⁹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념에서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신학’을 접하게 되었다. 통성경신학은 현대사회 직장(직업)선교에 있어서 개인신앙 개발뿐만 아니라, 올바른 직장선교 신학정립을 위한 성경적 기초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성속이원론신학’이 주축을 이루던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목회자 중심, 개교회중심, 주일중심, 예배중심의 신학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개념을 교회와 목회자와 주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¹⁰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되고 타락한 곳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원론적인 사고와 신학은 교회를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가

⁹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0), 34.

¹⁰ 박영창, “직장선교의 신학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천신학석사학위논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1998), 103.

되었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교회안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선교적 후퇴와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중세교회의 ‘성속이원론신학’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신학자들을 거치면서 ‘일상생활신학’과 ‘직장선교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조차도 하나님 선교의 장으로 인정하는 직장사역자요 직장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¹¹⁾’의 근본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개교회 중심에서 일터중심으로’ ‘주일 중심에서 평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에서 예배와 교육, 훈련중심’으로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¹²⁾

이런 평신도신학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재해석 작업은 직장(직업)선교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켰다. 교부나 중세시대처럼 평신도를 성직자(목회자) 계급에 종속적인 존재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관점에서 동일한 성직을 감당하는 존재로 격상시키게 된 것이다. ‘직업은 곧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 허락하신 성직이다’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모든 합법적인 노동은 신성하다’¹³⁾는 청교도 직업신학은 이후 모든 시대에 직장(직업)선교신학의 기축점이 되었다.

¹¹⁾ David Bosch, *Theology of Mission*, 이철민 역, *선교신학*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1), 287. 데이비드 보쉬는 그의 책 “*선교신학*”에서 선교의 근원은 기존교회 혹은 기존교회안에 속한 어떤 특정한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하면서, 하나님 선교(Missio Dei) 개념을 주장했다.

¹²⁾ Ibid., 104.

¹³⁾ Ryken, Leland. *Worldly Saints: The Puritans As They Really Were*, 김성웅 역, *청교도-이 세상의 성자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68.

직업에 있어서 구분은 있을지언정 구별은 없는 것이고, 직업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별은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해주신 자기고유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것이다. 직업에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각자의 직업을 존중하고, 서로 동등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은 직장(직업)선교 동력화를 위해 적절한 성경신학과 선교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통성경신학은 성속을 구분하는 과거의 이원론을 뛰어넘어서, 세상과 교회를, 신앙과 직장을 통전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통합과 일치를 시도하는 신학적 방법론이다. 그렇기에, 통성경은 직장선교신학을 현대적으로 정립하는데 있어 적합한 성경해석학이고 선교방법론이 될수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신우회원을 대상으로 통성경신학이 직장신우들의 개인적인 신앙성장과 선교발전에 미친 영향력(기여도)을 파악해보고자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V장과 VI에서는 위에서 실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통성경신학이 직장선교 동력화와 특히 직장신우회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제 II 장

노동과 통성경과의 관계성 이해

직장, 혹은 직업에 대해 일반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절대적 기준과 가치이며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직업)이란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적 수단이나 자기가치 실현을 위한 보조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직장(직업)은 곧 소명(Vocation)” 이라는 개념이다.

직장이나 직업이란 말을 영어로 할 때 보통 work, occupation, job, vocation 등을 쓰고 있는데, 이 가운데 vocation이란 말은 vocatio라는 라틴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vocatio의 뜻은 부른다 혹은 소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직장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위임) 거룩한 직분임을 의미한다.¹

이런 직장(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종교개혁자인 마틴루터(Martin Luther)나 존 칼빈(John Calvin)등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론(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 근거하여 성직만이 소명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직장(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직장(소명)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¹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27.

노동을 통한 사명: 구약과 신약

성경은 직업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일/사역이야기(Work-Story)’로 시작된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일)을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창조사역이 곧 하나님의 최초의 일(사역)이셨음을 이해한다면, 성경은 결코 일(사역)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일(직업)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셨고,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계신다.² 성경은 창세기부터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크게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이란, 정말 힘들고 고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부담과 수고’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직업(일)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노동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 일뿐 더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 일/노동(직업)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로써 노동을 부과하셨다고 본다.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처음 부분부터 등장하고 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으며” (창3:16), 남자에게는 “네가 종신토록

²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직업적인 단어들도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작곡가(시40:3, 32:7, 렘48:31-32, 습3:17), 토기장이(사64:8, 렘 18:1-8, 롬9:19-24), 의류업자(창3:21, 겔16:8, 사61:10), 정원사(창2:8, 겔31:8-9, 사51:3), 농부(사28:26,29, 요15:1-2), 목자(창49:24, 렘31:10), 건축가(시102:25, 사66:1-2, 고전3:10-15)등으로 등장하고 계신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3:17)하시면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창3:19)고 말씀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출산의 고통’ 과 동시에 ‘노동의 고통’ 이었다.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진 노동은 신성한 직업이 될 수 없고, 범죄의 결과물로 어쩔수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천하고 힘든 고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노동이나 직장은 인간이 범죄했던 까닭에 발생한 자업자득의 형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의 현장인 일과 직장(직업)에 대해 구약성경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고, 편협한 시야의 결과물³이다. 창세기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성경은 일/직업/직장선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류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 일(노동)을 죄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인류의 타락 전에 아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 받았다.⁴

정리해보면, 구약성경에서의 직장(직업)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부정적 개념도 존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직장, 즉 소명의 수단’ 개념이 훨씬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단락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 구약성경 창세기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일(노동)은 단순히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로 생긴 것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행위요

³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28.

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창 1:28)과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창 2:15)을 부여하셨다. 아담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 요즘 말로는 ‘작명가’의 일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일이자, 사명이다.

사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약성경도 구약성경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본다. 그것은 ‘일하시는 예수님’의 개념으로서 신약성경에 나타난다. 예수님 역시 목수(건축업자)의 아들로써(막 6:3) 공생애 이전에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직업현장에 항상 계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다면, 신약성경에도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음을 알게 된다.⁵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직업과 노동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도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에서 대부분 등장한다.

사도바울의 서신과 신학에서 나오는 직업관과 직장선교를 언급하기 전에 교부시대와 중세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성속의 분리’ ‘이원론적 사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계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하나됨(통합)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고대의 희랍철학에서는 성(하나님의 도성)과 속(땅의 도성)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었다. 이 땅에서 하는 직업들은 명상과 같은 고차원적인 일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어거스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땅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으로⁶ 나누어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도성으로 보았고 끊임없이 땅의 도성과의 투쟁적인 관계로 보았다.

⁵ 예수님은 목수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자(요10:11)요, 변호사(요일2:1)요, 의사(막2:17)로서 신약성경에 묘사되고 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도 그물질하는 베드로, 세관 앞에 있었던 마태처럼 일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일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 있다. (막1:16, 마9:9)

⁶ 배중수, “교회에서의 직장인 사역의 필요성과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43.

이 땅을 단순히 순례의 도성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로 보았다. 그때부터 성숙이 분명히 구별된 직업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봉건적, 전근대적 사고를 더욱 끈고히 하게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직업관은 위의 봉건적이고, 교권적인 시대의 이원론적인 생각과는 달랐다. 바울은 직장(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생활과 실생활과의 간격을 줄이고자 했다. 바울은 노동과 직업을 복음선포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직업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였다.⁷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 바울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자들은 이런 제도의 수혜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천막제조업자로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다. (행 18:3) 이것은 “tent-making ministry 또는 자비량 선교”⁸라고 불려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직장(직업)을 하나님이 각자 개인을 부르셔서 맡겨주신 ‘직분(vocation)’ 이자 ‘축복의 기회’ 로 보았다.⁹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는 사도바울의 직업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울이 생각한 소명은 하나님이 개인구원만을 위해

⁷ 이대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175.

⁸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 현장*, 161.

⁹ Ibid., 28.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 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일하는 그리스도인’ 이 되라는 것이다.

이런 사도바울의 직업관은 다른 신약성경의 사도들의 기록에서 잘 나타난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일(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며,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바울조차도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 보았다. ‘소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기독교의 소명은 거룩한 소명(Holy calling), 하늘의 소명(Heavenly calling)로 통한다’ 고 보았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과도 직결된다고 보았다.¹⁰

살펴보았듯이 고대희랍시대나 중세봉건시대에서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기초로 철학과 종교적인 일들은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직업이나 노동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듯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 특히 바울사도는 모든 직장(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명으로서 이해하였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직장(노동)은 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일(daily work)¹¹로 간주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다시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수단으로 직장을 이해하고 있다.

¹⁰ 이대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176.

¹¹ Ibid., 176.

노동과 함께하는 사명: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

전술하였듯이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성경시대 사도들은 직장(노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직장(노동)에 대한 소명의식은 종교개혁자 마틴루터(Martin Luther)나 존 칼빈(John Calvin)에 의해서 분명하게 표명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론(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 근거하여 성직자들만이 소명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마틴루터는 ‘평신도와 성직자, 황태자와 주교 사이에,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진정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¹²라고 언명하였다.

만인제사장론은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져갔던 평신도의 위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도록 유도했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나 평신도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였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단지 직무의 차이일뿐,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물론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은 성직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교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성직자는 필요한 것이며, 그리스도안에서 평등한 직무수행을 강조했다.¹³

마틴루터는 항상 일(노동) 또는 직업이라는 말보다 소명(vocation)이나 천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¹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노동은 신성한

¹² 이동근, “교회 속의 평신도 훈련을 통한 직장선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 21.

¹³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57.

¹⁴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276.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는 결코 귀천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마틴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거스틴과는 다른 두 개의 왕국개념을 설명하고 있다.¹⁵ 이 두개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모두 속해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왕국의 직업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세상왕국에서 직업을 가지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존 칼빈도 마틴루터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직업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천직으로 간주하면서 ‘직장(노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의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때도 장사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이며, 이자와 상업활동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였다.¹⁶

중세봉건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상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던 평신도에 대해 긍정적 역할과 상당한 비중을 부여해 주었다. 존칼빈은 평신도의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교회행정에 까지 참여하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로서의 제네바는 장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¹⁵ Ibid., 219.

¹⁶ 이대현, “도시산업화 시대의 직장선교 구조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101.

도시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성직자나 장관, 장로 또는 일반 성도가 봉사자로서 충성을 다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¹⁷

정리해보면, 존칼빈도 그 시대의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처럼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각자의 직업의 현장에서 노동(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가질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됨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도구요,¹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임을 강조하였다.

현대 평신도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헨드릭 크래머(Hendrick Kraemer)는 그의 저서 ‘평신도 신학’에서 종교개혁은 마틴루터에 의해서 개혁의 불길이 당겨지고, 많은 평신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평신도 개혁운동이라고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평신도의 지위에 대한 성직자들과의 동등성, 역할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은 평신도들의 교회활동참여와 역량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⁹

마틴루터, 존칼빈과 같은 초기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평신도 신학운동은 독일의 경건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야콥 스페너(Jacob spener, 1635-1705)와 프랑케(A.H.Franke, 1663-1727)가 주축이되어, 독일 할레(Halle)대학을 중심으로 독일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평신도들도 성경공부와 기도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성숙은 물론, 각자 개인의 은사를 개발할수있고, 사회성화 및 선교활동에도 주체적으로 설수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케의 제자였던 진젠도르프(N.L.Zinzendorf, 1700-1760) 백작은 모라비안 선교단을 창립하여서, 무려 33년간을 카리브해와 미국 등 현지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그의 최대 공헌은

¹⁷ 이동근, “교회속의 평신도 훈련을 통한 직장선교,” 35.

¹⁸ 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로 살아라* (서울: 도서출판 치유, 2003), 120.

¹⁹ 이진철, “평신도 선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6), 26.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²⁰

뿐만 아니라, 직장선교 신학자의 대가인 윌리엄 댁커(William Danker)는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세운 가장 중요한 공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한 선교사이며, 날마다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직업선교(BAM-Business as missions)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²¹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18세기에 일어난 ‘영적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평신도 운동이 모든 선교사역 전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세기말경의 학생신앙운동(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은 당시에 팔목할만한 평신도 신앙운동이었다.²² 이 운동은 존 윌더와 당시 YMCA 코넬 지부장이었던 존 모트 등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평신도 존 모트(John R. Mott)는 학생선교의 불길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당시 학생운동의 표어는 ‘이 세대 안에 전 세계의 복음화’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였고, 그 당시 기독교 학생들이 세계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또 학생신앙운동 설립에 막대한 역할을 끼친 사람은 무디(D.L. Moody, 1837-1899)였다. 1886년 여름 메사추세츠주에 있었던 헤르몬산 집회에서 무디는 설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세계선교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이 집회를 통해서,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학생신앙운동’으로 인해 일생을 선교에 바치기로 결단한 학생들이 대략 15만 명에 이르렀고, 그중에 약 2만 명 가량이 실제로 해외로 파송되었다.²³

²⁰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54.

²¹ 이진철, “평신도 선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26.

²² Ibid., 27.

²³ Ibid., 29. 이 당시 학생신앙운동의 영향으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중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초기개신교 선교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개신교보다 엄격한 성직자 계급구조를 가진 카톨릭 교회에서도 평신도에 대한 관심과 역할증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카톨릭 신학자 칼라너(Karl Rahner, 1904-1984)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카톨릭교회 내에서 새로운 평신도신학 정립에 힘을 기울였다.²⁴

이런 카톨릭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의(1962-1965)에서 평신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먼저는, 라틴어 성경대신 각국 모국어로 번역성경사용이 가능해졌고, 평신도에게도 성경읽기가 허용됐다.

제2바티칸 종교회의의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 계급적으로 천시되어왔던 평신도의 참여와 선교사역의 지경이 열리게 되었는데, 평신도 신학자인 콩가르(Yves Congar)는 카톨릭교회에서의 평신도 신학정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1차 바티칸 종교회의가 주교들을 위한 회의였다면,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는 평신도를 위한 회의였다’ 고 평가받는것도 이런 이유에 있다.²⁵

이런 시도는, 카톨릭교회 뿐만아니라, 개신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제1회 암스테르담대회(1948)이후 모든 대회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²⁶

1968년 읍살라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남녀 평신도들은 그들의 선교적 헌신을 교회 안의 봉사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과 공공봉사에서도 나타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실로 평신도 선교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²⁴ 칼라너는 그의 저서 “미래의 교회형태”에서 미래형 교회의 4가지 모습을 제시했다. 1) 탈 성직자화된 교회 2) 섬기는 교회 3) 기초공동체에서 시작하는 교회 4) 민주화된 교회 등으로 소개하였다

²⁵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54.

²⁶ WCC모임은 1948년 암스테르담대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평신도 신학과 사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리고 있다. 그러나, 1971년 방콕대회를 기점으로 그 활동이 주로 인권운동, 정치운동 등의 사회복음화 운동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는 평가가 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선교에 있어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⁷

동시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평신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있었다. 1966년에 발표된 휘튼 선언(The Wheaton Declaration)에서도 보면 ‘거대한 평신도 집단에 대한 훈련과 활용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²⁸. 1974년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열린 제1차 세계복음화대회에서 신학자 메디슨 포드(Madison Ford)는 말하기를 ‘평신도들도 이제는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함께 사역하는 일입니다.’²⁹라고 하였다. 이어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즉 제2차 로잔대회(Lausanne II)에서 발표된 마닐라선언(The Manila Manifesto)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전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안수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 모두가 이 복음화 사역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바른 위치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며, 주님의 대(大)사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³⁰

간략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 내에서의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 성직자와 선교적 동반자로서의 평가는 지금까지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교파,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전체가 평신도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였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성직을 맡은 성직자요, 동일한 제사장됨을 말씀하고 있다. 성직에 있어서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위와 계급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²⁷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55.

²⁸ 주성훈, "The Wheaton Declaration," *한국선교총람*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1996), 364.

²⁹ 김성욱, "평신도 선교운동의 교회사적 연구," 32 *세계선교* (1997), 30.

³⁰ "The Manila Declaration," 444.

것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목회자들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아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잘 양육하고, 준비시키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도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줘야 할 사명이 있다.³¹ 특히,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인류구원을 이루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³²

노동과 사명의 통합: 선교신학적 이해

하나님께선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선 인간과 더불어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사명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매시대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사명’이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시고 계신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도’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다.³³

직장선교신학이란 무엇인가? 소위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활동에 대한 신학’이라고 해서, 직장선교신학을 ‘일터신학’이라고도 부른다. 박흥일은

³¹ 장성배, “직장선교를 위한 교회구조의 갱신,” 57 *신학과세계* (1996), 203-204.

³² 송영만, “직장신우회를 통한 선교전략” (신학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07), 16.

³³ Henry T. Blackaby, *Called and Accountable*, 최문정 역, *소명* (서울: 두란노출판사, 2003), 16-17.

‘직장선교신학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학’ 이라고 하였다.³⁴

넓은 의미에서 직장기독교인들이 처해있는 삶은 자리를 3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정ियो.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한국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지만, 통계자료에도 나왔듯이 일주일에 평균 44 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생활과 직장선교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직장선교는 결코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직장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직면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앙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서, 직장선교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직장선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직장선교는 하나님의 통치영역의 확산’ 이라고 볼수있다.³⁵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직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것이 직장선교신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기독교회 역사는 어느덧 130 여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선교개념과 영역들이 너무 지역교회(local church) 성장과 부흥에만 열심을 내었고, 선교를 신자수 늘리는 개인영혼구원에만 편중되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성경적 교회론과 선교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³⁴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73.

³⁵ 장성배, “직장선교를 위한 교회구조의 갱신,” 199-200.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셨던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막 11:17)이셨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마 5:13-14)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수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또 다른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면, 그것은 곧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직장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정립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과 매주일 다니고 있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속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평신도들은 그들 스스로 평신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교현장인 ‘직장’ ‘일터’에서도 전도의 열심을 내야할 것이다.³⁶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로마교회의 비성경적인 성직우월주의를 오른손으로 밀어내면서, 왼손으로는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이상한 짓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³⁷라고 하였다.

정말 불행하게 한국교회는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신학과 주도권의식을 가지고, 평신도의 역할과 역량들을 제한시켜왔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때가 온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 직책, 계급에 따라 움직이는 일반직장이나 사회조직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³⁶ Leonard Sweet, *Out of the Question...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07), 240. Leonard Sweet 교수는 그의 저서 “*관계의 영성*”에서 ‘전도는 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집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요. 또한, 전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으로 보고있다.

³⁷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8), 43.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성직자나 평신도라는 직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사역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직분의 차별은 없고, 사역의 구분만 있다” 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³⁸

목회자에게 교회가 일터라면, 일반성도들에게는 직장이 곧 일터가 아닌가? 목회자가 지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듯이, 평신도는 일터에서 하나님나라를 건설해가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과 통합적인 선교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선교신학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 신학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교의 주역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선교의 도구인 교회의 역할, 직장선교를 위한 대리자로서의 평신도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선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협력하여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³⁹

그렇다면, 이제는 직장선교신학에 기초가 되는 직장선교의 방향성과 특성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직장선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학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계기독교 직장선교회’ 내규에 보면, 직장선교의 기본방향에 대해 5가지로 말하고 있다.⁴⁰

- 1) 말씀중심, 기도중심, 복음중심의 선교
- 2)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동
- 3) 정치적 중립성
- 4) 노사관계에서의 화해자적 촉매제 역할
- 5) 교회와 사회의 십자가 가교역할

³⁸ 이진철, “평신도 선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13.

³⁹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현장*, 74.

⁴⁰ Ibid., 40.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직장선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이런 직장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문제때문에 한국기독교 직장선교회나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회 같은 직장선교회는 지역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파라처치(para-church)⁴² 단체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직장선교회는 지역교회와 잘 소통하고, 지역교회와 더불어 예배와 성경공부,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선교적 동역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직장선교신학을 잘못 이해한 실수를 범해왔었다. 직장선교단체도 지역교회와의 첨예한 대립 혹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교회와 직장, 목회자와 평신도는 상보적 관계이지, 상대적 관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서로 각자가 대조를 이루는 점이 있을지 몰라도,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름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구분되어야 할 뿐이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성직자 중심인데 반하여 직장선교회는 평신도 중심이라는 것, 교회는 성전중심인데 반해, 직장선교회는 직장(일터)중심이라는 것, 교회는 주일중심인데 반해 직장선교회는 평일 중심이라는 것, 교회는 예배중심인데 반해, 직장선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연구, 기도와 전도중심이라는 것을 서로가 이해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⁴¹ 직장선교회 내규중에서 1항은 직장선교의 신학적 기초가 복음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2항은 교회일치운동, 3항은 직장선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4항에서는 노사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한 직장선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5항은 직장선교회는 지역교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서로 도우며, 서로 상생하는 선교조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⁴²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 공동체 곧 기성교회를 ‘로컬처치(Local church)라 한다면 보다 폭넓은 개념의 공동체(선교단체)를 ‘파라처치(Para-church)’라 부른다. 로컬처치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기성교회와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는 일종의 ‘탈(脫) 교회’를 가리킨다. IVF, CCC, 네비게이트, 직장선교교회나 학원선교교회를 파라처치라한다.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2013).

지금까지 직장선교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는 지역교회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평신도들이 교회 내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평신도들이 직장 내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보다도 ‘직장이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라는 성립된다.

개체교회를 ‘모이는 교회’ 라고 한다면, 직장선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라고 할 수 있다.⁴³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직장선교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를 상호갈등이나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상생적 관계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⁴³ Ibid., 42.

제 III 장

통성경을 통한 직장선교의 이해

한국개신교 선교역사 13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한국 근대사와 더불어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 188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아펠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를 필두로 한국으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은 조선땅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비록 교단적 배경과 선교적 방향성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교라는 대의(大意)를 위해 그들은 연합하고 또 선교적 에너지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쪽에서, 교육과 의료선교를 할 때, 다른쪽에서는 교회개척과 한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음선교와 계몽운동을 병행하는 선교방식을 취하였다.

이때는 미국북장로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 할 것 없이 조선복음화와 개화를 위해 엄청난 수고와 헌신, 연합과 동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당시 한국교회가 한국근대화에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1919년 3.1독립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자필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 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전체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고작 3%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¹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조선독립의 기초를 만든 민족지도자들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 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조선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근대화와 계몽을

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6.

이루는데 주춧돌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말 한국근대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틀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전반적으로 주도했던 ‘사회적 리더십’을 가진 교회였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있고, 또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야 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란 그 교회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세상복음화 명령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해당되는 진리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것이다.²

‘성경통독과 선교’는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양립되어서도 안 되는 상생과 공존의 부분이다. 한국선교의 두 개척자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조차도 ‘성경통독과 훈련’ 가운데 조선에 대한 선교적 열정과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두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880년대 무디를 중심으로한 학생신앙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성경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했던 성경통독가’들이었다.³

지금의 한국교회는 ‘동북아 주도권 경쟁시대’⁴가운데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할 중요한 위치에 서있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문제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병호는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성과 시대적 사명을 분명하게

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0-21.

³ 이진철, “평신도 선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27.

⁴ 조병호, *21세기는 통(通)이다*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190-191. 조병호는 한국이 지정학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동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 갈등과 중국경제의 급부상,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과 같은 주도권 경쟁시대의 한가운데 서있다고 보았다.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영의 섬김의 리더로서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한다고 보았다. 조병호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둘러싸있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교량역할을 감당할수 있다고 보았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동서양을 서로 소통하고 통합할수 있는 존재요, 동서양을 동반자적인 관계와 상생관계로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 것이다.⁵

이런 조병호의 주장을 본 연구자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이루기 위해 제사장나라의 컨셉을 실제로 감당할 나라는 한국사회,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일본교회는 한국교회보다 선교의 역사는 훨씬 길지만 아직도, 일본복음화를 이루어 가기도 역부족인 상태이다. 중국교회도 아직까지 중국정부나 공안의 통제와 관리가운데 있기에, 중국을 넘어선 동북아선교나 교회적 사명을 이루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구교회뿐만 아니라 중국교회, 일본교회들조차도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⁶.

한국은 현재 세계 2번째 선교사 파송국가이다. 이는 양적인 우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교회가 감당해야될 사명의 막중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인해 영적인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세상복음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한국교회로서 자리잡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미래교회학자인 이성희 목사도 “미래목회 대예언”에서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⁵ 조병호, *통이다. 켈츠통* (서울: 통독원, 2007), 221.

⁶ Ibid., 222.

현재 역사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다. 토플러는 미래의 세계는 동북아시아의 쌀을 먹는 민족이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작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섬세한 손을 가진 민족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손이 발달한 민족으로 꼽힌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때, 한국교회도 세계의 중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⁷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선교적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자각하고 실제적인 준비와 대처를 하라고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병호는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이정표 내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제사장나라” (A Kingdom of Priests) 개념이다.

조병호는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나라 개념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나라와 민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독점하고 주도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제사장나라는 ‘사랑으로 다른 나라를 섬기고, 도와주고, 상생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말한다. 제사장나라는 일반적인 제국들처럼 힘(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약탈해서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⁸ 아니라고 말한다.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언약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상호생명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매개자 혹은 중보자)으로서 역할을 요구한다. 그렇게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와 국방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겠다는 상호 언약공동체인 것이다.⁹

⁷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384.

⁸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366-367.

⁹ Ibid., 45.

제사장나라는 먹고 사는 물과 식량의 문제, 그리고 앗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주위 열강들의 공격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변국들의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약속이 그들에게 있다.

이 약속, 다시 말해 언약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간의 합의를 통한 계약”으로 완성된 것이다.¹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철저히 쌍방계약으로 완성된 관계인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나라는 ‘나눔과 섬김’ ‘공감과 공유’ ‘소통과 통합’을 근본적으로해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다른 제국들처럼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생명과 상생’의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숨을주는 곳, 죽었던 영혼들조차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조병호는 강조한다. 그는 모든 제사장나라 개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근본을 “성경”으로 보고 있다. 바로, 성경통독을 통한 통신학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진정으로 동북아 시대의 교량역할을 감당하고 동서양의 소통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사명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 핵심키워드를 ‘성경통독’이라고 하였다.

그 사명 감당의 원동력은 바로 성경이다. 핵심가치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한 21세기적 방법이 통(Tong)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경을 통(Tong)으로 읽어 그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영성과 사회성, 지식과 실천, 신약과 구약의

¹⁰ Ibid., 46.

균형을 갖추고자 하는 꿈을 세계를 향해 제시해야 할 때이다.¹¹

본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조병호의 통성경(Tong Bible)이 탁월한 시대적 상황분석자료요, 한국교회적 사명을 명료하게 제시한 시대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였다. ‘성경회복운동이 곧 교회개혁과 사회변혁 운동의 시발점’ 이 된 것은 세계기독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회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병호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고 말한다.¹²

이는 성경이 영혼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요, 성경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생활(부부관계)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요, 부모자녀간에 어떻게 존경하고 배려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관계형성 지침서요, 한나라가 더욱 부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경영지침서가 될수도 있는것이다.

또한, 성경말씀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책이자, 유일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병호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책의 주요 맥락을 ‘제사장나라(A KINGDOM), 하나님나라(THE KINGDOM), 그의 나라(HIS KINGDOM)’라는 3가지 개념으로 집약하였다. 조병호가 말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할만한 재능이 연구자에게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¹¹ 조병호, *통이다*. 랫츠통, 221.

¹² 조병호 박사는 ‘통성경포플라’라는 성경통독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이자, 최고의 매뉴얼(manual)을 만들었는데, 그는 이 책을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한 공식을 정리한 책’이라 하였다. 즉, ‘어머니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요, 그 성경양육을 받은 자녀들 입에서 신앙고백을 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랐다.

제사장 나라를 통한 통합

제사장 나라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시작된 유대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구약성경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개념(key CONCEPT)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큰 우산과 같다. 다른 말로는 큰 그림과 같고, 중요한 프레임(Frame)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창 1:1), 그 가운데 특히 인간(창1:26)을 창조하신 후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 영적인 교제와 동역자적인 관계로 세워주셨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원역사에서는 인류의 창조, 죄와 불순종을 통한 타락, 노아시대 홍수심판과 구원, 이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필두로 민족분열의 역사들이 나와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구원의 도구요, 동역자로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거룩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 모든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셨다.¹⁴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민족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와 존재,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것이다.

¹³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42.

¹⁴ 창세기 12장 2-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것이라 하신지라. (개역개정판)

구약성경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제사장 나라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명백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상호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상호간에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모세였고,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에서 국가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진 존재가 된 것이다.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주권은 바로 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심으로써 국가형성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를 이루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국민을 이루는 기간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 되었으니, 적어도 200-300만 명의 국민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 제사장 나라는 주권(율법)과 국민(군대조직)은 있었지만, 국가를 이루는 필수요소인 영토가 없는 상태였다. ‘국방’ 과 ‘안보’ 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나라의 기틀은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영토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영토문제를 여호수아가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디자인하셨고, 모세시대에서 Set-up된 제사장나라는 여호수아 시대에 비로소 영토, 국민, 주권(율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제사장 나라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소원과 바램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 국가경영
 컨셉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애굽에 임한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히브리 장자와 모든
 초태생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서, 그 기반위에서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¹⁵

제사장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 혹은 중보자’ 적인
 존재이다. 제사장은 중보자 이전에 ‘구원받은자(존재)’ 임을 알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 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자신들이
 마치 구원자처럼 역할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¹⁶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대표되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회복,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간의 관계회복도 이루어짐을 말하고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기에, 이스라엘은 ‘예배(제사)공동체’ 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¹⁷

성경은 철저히 약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의 의무를 성경전체에 명시하고

¹⁵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47.

¹⁶ Ibid.

¹⁷ Ibid.

있다. 예를 들어, 추수를 하더라도, 모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과부나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구약의 율법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¹⁸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족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을 원하신다. 이방민족들이 이런 평화를 깨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갔던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¹⁹

제사장은 법궤(언약궤)가 있는 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때문에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요소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지역주의

¹⁸ Ibid., 48.

¹⁹ Ibid.

만연과 내적 분열로 인해 “영적 암흑기 35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어두운 시기를 보낸 셈이 된 것이다.²⁰

이후, 사무엘 시대는 과거의 지역주의, 분열의식을 극복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이웃국가들과의 국경문제도 해결해가며, 비로소 온전한 국가경영이 시작된 시기였다. 사무엘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세금에 대한 과도한 부과 없이 국가경영을 이루어 갔다. 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사울시대를 지나서 구약 2000년 중에서 1000년 모범을 보였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역사 가운데 최고의 시대를 보낼수 있게 만들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나단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법치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1000년 모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은 집권중반기까지 부친 다윗의 뒤를 이어 제사장나라의 건설과 성전건축까지 완성하며, 다윗의 비전을 이루었다. 솔로몬이 드린 성전낙성식의 기도는 ‘제사장나라 정치현장’ 이자,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선언’ 이었다. 이 성전낙성식 기도는 솔로몬이 이방민족과 함께 가는 동반자적 공동체 선언을 한 것이며, 완벽한 제사장 나라 컨셉을 실현한것이였다.²¹

그런데, 그렇게 월등했던 솔로몬이 집권후기로 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방여인들과의 정략결혼과 우상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다.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나라정치에서 제국주의로까지는 옮겨가지 않았지만, 종교혼합주의와 과도한 과세정책으로 국력은 쇠퇴하고,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의

²⁰ 사사기의 영적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은 사사기 21:25절 말씀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²¹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143-144.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솔로몬 사후 200년의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가진 것을 서로 선용하지 못하였고, 국가경영에 빈곤과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제사’가 없는 국가적 문제가 있었고, 남유다는 경제적 부의 창출이 힘들어서, 힘든 국가경영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열왕국 시기에 활동했던 세력이 ‘선지가 그룹’이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 등은 거침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합의하에 선언하였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상실한 결과로 북왕국 10지파는 BC 722년에 앗수르 살만에셀왕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포기한 결과는 곧 국가의 멸망과 소멸이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똑같은 형태로 남유다도 영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대최후 3대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주의 열강들 눈치만 살피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이 남유다의 멸망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결국 남유다도 BC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멸망되고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보내게 된 것이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시대에 남유다는 국민과 주권(율법)은 있었지만, 영토가 없는 마치 모세시대와 동일한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국민의 주권과 영토까지 상실된 상태였지만, 오히려 이런 국가적 위기와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학습하고, 그 회복을 위한 훈련(연단)을 받는 포로기 70년을 보내게 된 것이다.²²

이어진 페르시아 시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충분히 학습하는 시기가

²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32-135.

되었고, 비록 국가구성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율법)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포로기의 유대지도자들을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엄청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충실도는 더 높아지는 회복의 시기였다.²³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직장

두 번째로, 신약성경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개념(key Concept)이 하나님나라(THE KINGDOM)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을 여는 키워드가 제사장나라였다면, 신약성경을 여는 키워드는 하나님나라이다.²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한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속한 제국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나라이다.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가진 왕이 주도해서, 약소국가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복속시키는 나라이다. 약육강식의 법칙만 있을 뿐, 공존과 공생의 길은 생각하기 힘든 것이 제국이다.

제국은 왕이 자기이름을 세상만민과 온 천하에 알리는 자기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나라라면, 제사장나라는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인 것이다. 이런 제국에 비해 제사장 나라는 외적으로 거대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의 왕은 절대권력자가 아니라, 절대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로서 일하는 존재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은 신약시대에 들어 ‘하나님 나라’의 컨셉으로 수렴(收斂)된다. 제사장 나라가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되어, 장자와

²³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193-194.

²⁴ Ibid., 212.

성전이 그 핵심요소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여서, 제자와 교회가 그 핵심요소가 되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맨 처음 세례요한에 의하여 처음 선포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²⁵으로 지목하고 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수렴되면서, 구원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최초의 장본인이 된 것이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독설을 퍼부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종의 모습을 보였다.

요한복음 3장 28절-30절에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세례요한의 소개로부터 등장한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은 4복음서에 잘 나타나있다. 4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이 비유(metaphor)와 이야기(parable)에 담겨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예수님은 4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Set-up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사시면서, 십자가 죽음 이전에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 조병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컨셉을

²⁵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역개정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 받게 된 것입니다.²⁶

구약시대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동물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한 제사였다. 소위 말하는 대신법의 개념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다른 속죄의 방법이 열린 것이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설사 온 세상을 정복하고, 제국의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제국조차도 한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²⁷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 지역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 나사렛 등과 같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가시기도 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 있었다기 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²⁶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220.

²⁷ Ibid., 236.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셨던 사랑의 주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거라사까지 가서서 광인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항상 전체를 보시면서도 하나를 주목하셨고, 하나를 보시면서도 전체를 보셨던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실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셨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내 아버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²⁸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앞에 설수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공의앞에 불의(죄)는 결코 설수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 십자가의 길이 죄인된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앞으로 갈수있는 길을 열어주신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로 부를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함축된 것이 바로 ‘주기도문’ 에 잘 나타나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은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²⁸ Ibid., 237.

길이 열린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성전의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구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능을 종료시키셨기 때문입니다.²⁹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구원관을 새롭게 정립해야한다. 구약성경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짐승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³⁰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은총의 상징(Symbol)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Symbol)도 되는 것이다.³¹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는 말을 할수있는것이다. 우리 기독교회가 매시대, 매상황마다 어려움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영적침체로부터 회복할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을 경험하는데서 출발한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²⁹ Ibid., 254.

³⁰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³¹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254.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³²

어린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제사와 제사장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수도 있고, 직접 기도하고, 찬양할수 있는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이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³³

이렇게 하나님은 4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Set-up 하셨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3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세력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대제사장 세력들과 완악한 유대인들이 초대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배척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들이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기면서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적 기능이 다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기득권, 물질적인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해세력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³² Ibid., 255.

³³ Ibid., 260.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고, 완성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제자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제자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³⁴

열리는 제자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세대로 설수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서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의 나라와 직장선교와의 통합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2000년의 신약성경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개념(key Concept)이 그의 나라(HIS KINGDOM) 개념이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그림을 구체화시키셨다. 그 이후에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컨셉안에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되어서 마침내, 그의 나라(His Kingdom)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도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³⁵

³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³⁵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323.

하나님의 나라는 긴박성을 가지고 이해돼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되며, 아버지의 장례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지연시키는 변명이 될수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왜곡된 제사장 나라의 틀 속에 갇힌 백성들과 그들을 억압하는 대제사장 세력을 향하여 밤낮없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셨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수렴되었고, 또한, 한정되어 있었던 성전의 기능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대체되었음을 선언하셨다.³⁶

이런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축제적 사건인 ‘그의 나라(His Kingdom)’이야기로 전파되었다. 십자가와 부활로 전해지는 ‘그의 나라(His Kingdom)’를 막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핍박하였고, 로마제국이 무서운 박해를 가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독수리가 더욱 높이 날 듯이, 그의 나라(His Kingdom)의 복음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인’ 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헌신과 순교의 밑거름으로 인하여, 점차 확장되어 갔다. 그의 나라(His Kingdom)는 그야말로 생명의 씨앗과 같은 존재였다. 그의 나라(His Kingdom)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 생명력의 확산을 보여주었다.

결국 박해의 주체였던 로마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수용하고,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다. 연약하고 유한하며,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짧은 순간의 시간을 살 수밖에

³⁶ Ibid. 328.

없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복음에 사로잡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한다면 그의 나라(His Kingdom)와 함께 영원토록 살수 있게 될 것이다.³⁷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하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지극히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나라(His Kingdom)는 구원받는 한 영혼으로 인하여 영원히 이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계승되고, 또 확장되어가야 할 것이다.³⁸

통성경(Tong-Bible)이 직장선교 동력화에 미친 영향력 - 포용성과 확장성

서두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연구자는 직장선교의 현장에서 8년간 사역한 기관사역자이다. 그것도 경남지방경찰청이라는 약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치안현장에서 몸을 담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경남지방경찰청 산하에 23개 경찰서가 있고, 경찰직원이 약 8,800여명이 된다.

그 가운데 기독교경찰관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사역기간 내내 기독교경찰관 현황파악을 위해서 경찰청에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문제는 실제적인 기독교경찰관 숫자를 파악하기 정말 어렵다는 게 현실이었다. 23개 예하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실제적인 응답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응답 자체를 꺼려하는 조직 내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경찰관들 실태파악을 할 때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직장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표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였다. 정말 이런 기독교경찰 신우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수도

³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87.

³⁸ *Ibid.*, 350.

있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다른 기독교신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일례로,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옆에서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라는 경남최고의 관공서들이 존재하지만, 그곳에서 기독교직장신우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경남지방 경찰청뿐이다. 어떻게 거대한 관공서가 3개가 있는데, 직장신우회는 한곳밖에 없는지에 대해 질문 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경남지방경찰청에만 전문 사역자, 소위 경목(Police Chaplin)’ 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담임자(담임목사, 담임전도사)가 있듯이, 직장에도 담당목회자가 있다면, 그 직장선교는 대상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엄청난 선교적 결과물들을 창조해 낼수있을것이다. 결국, 선교의 주관은 ‘하나님’ 이시지만, 선교의 도구는 ‘사람’ 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고 또 그 모임으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있는 낙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지금부터 지역교회들(Local Church)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라는 영역을 넘어, 성도들의 일터인 직장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키워가야 할것이다. ‘일터가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라는 마인드가 저변확대 된다면, 엄청난 선교적 반향이 일어날것이다.³⁹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적 가치관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레너드 스윗의 복음과 선교에 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에픽인생(Epic life)’ 개념이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본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그의 저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에서

³⁹ 송영만, “직장신우회를 통한 선교전략”, 3. 송영만은 모든 기독교신자는 직장선교사이고, 그들의 선교현장은 곧 직장이라고 하면서, 직장은 목회가 적용되는 곳이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하였다.

에픽인생(Epic life)을 강조하였다.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측면에서 스타벅스 커피와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⁴⁰

먼저, 스타벅스 커피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경험(Experience)을 판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늘 똑같은 커피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든 듯한 자기만의 특별한 커피를 원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새로운 커피를 체험할 수 있게하고, 새로운 커피 맛을 맛볼수있도록 항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곳에 폭 빠져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Experience)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⁴¹

두 번째가 참여(Participation)이다. 스타벅스 커피는 자기만의 커피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커피와 함께 그 정경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누리도록 제공한다. 복음 역시 참여적이다.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복음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흠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Participation)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초청하시는 분이시다.⁴²

⁴⁰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37.

⁴¹ Ibid., 50.

⁴² Ibid., 90.

세 번째가 이미지(Image)이다. 스타벅스 커피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리에 이미지화되도록 하는 게 회사의 경영전략이다. 스타벅스는 회사내적으로도 바리스타들에 대한 처우와 대우를 높여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일에 대한 헌신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것이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한, 모든 매장마다 같은 분위기, 스타벅스만의 사명과 독특함을 담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고, 이런 이미지(Image)가 형성된 체험 속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이미지(Jesus Image)를 세상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동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역설적으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권위적이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셨다. 누구나 다가가고 싶고 연약한 자들조차도 한번쯤은 만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갖도록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의 이미지로 바꾸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가 심어야 할 이미지는 무엇인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어지고, 경험하고 싶어지도록 할 것인가? 그 이미지를 창조해내야 하는 것이다.⁴³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관계적(Connection)이다. 스타벅스는 커피만이 아니라, 관계를 팔고 있다고 말한다. 단지 커피만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작은 공간이면 충분하겠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매하면서, 넓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곳에서 친구와 만나고, 직장동료와 대화를 나눌

⁴³ Ibid., 146.

수 있도록 색다른 제3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소위 커피를 통해서 관계를 판매하는 곳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는 저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관계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와서 깨어진 관계조차도 회복되고, 다시 대화와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가 경험되는 곳이다. 동시에, 교회는 나와 너, 우리들끼리의 친밀한 관계(Connection)가 경험되는 장소가 되어야 할것이다.⁴⁴

그러나, 연구자가 본 논문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자 싶었던 부분은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의 개념들, 특히 ‘제사장나라-하나님나라-그의 나라(A-THE-HIS KINGDOM)’이다. 이런 통성경의 개념이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직장선교 동력화에 효과적인지를 연구해보자고 본 본문을 쓰게 된 동기였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통성경신학은 직장선교의 동력화(Empowering)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목으로서 8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조병호의 성경통독훈련과 통성경 지도자과정(Tong-Lecturer)후 설교가 향상되었고, 신우회의 양적성장과 영적부흥을 이루었다는 신우들의 평가가 있었다.

바로,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가 경찰조직 내에서 제사장 나라(A KINGDOM)가 되고, 하나님 나라(THE KINGDOM)가 되며, 그의 나라(HIS KINGDOM)를 이루어가는

⁴⁴ Ibid., 188.

하나님의 훌륭한 선교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있는것이다.

제사장 나라(A KINGDOM)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완성하신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한하게 내려주셨듯이, 기독교경찰 신우회가 경남지방 경찰청내에서 복의 통로로, 섬김과 나눔의 실현장소로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 통치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⁴⁶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나 직장과 조직, 나라와 민족, 열방가운데서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⁴⁷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가 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산하에 약 8800여명의 경찰이 있고, 그 가운데 500여명이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경찰청사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만약, 경목실과 신우회원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인성과 생활 속에서 실천이 있다면, 여타 다른 불신자 직원들조차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하나님나라가 어떤

⁴⁵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43.

⁴⁶ Ibid., 259.

⁴⁷ R.A. Torrey, *How to Succeed in the Christian Life*, 최연식 역,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토레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해서도 안되지만,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영적침체에 빠질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강조하였다.

곳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들 또한 하나님나라(THE KINGDOM)의 통치' 속에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HIS KINGDOM)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인해, 죄악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미완(未完)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기쁨과 천국을 보여주셨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이다⁴⁸.

이제 신우회가 경남지방경찰청 가운데서 존재해야하는 이유와 방향성을 그의 나라(HIS KINGDOM) 컨셉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에덴의 기쁨회복”이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어렵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란 허구이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기쁨만이 참되고, 완전하며,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했다. 이제 기독교신우회가 다른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기쁨과 감격’ 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것이다. 이를위해, 기독교신우회가 먼저 ‘진정한 기쁨발견자’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젤라 손(Angela Son)은 ‘기쁨의 영성(Spirituality of Joy)’ 에서 갈등유발자와 기쁨유발자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⁴⁹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시대와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줄수있는 ‘기쁨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고 했다.

⁴⁸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314-315.

⁴⁹ Angella Son, *Spirituality of Joy*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2013), 7.

연구자가 발견한 통성경의 최대장점은 ‘포용성과 확장성’이다. 통성경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것이 수용되고 통합될 수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용성(Receptivity)이다.⁵⁰

통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로 확산되었다. 이제는 교회가 모이기만 하는 장소에서 흠어지는 장소로,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세상속에서 들어가는 교회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한다. 이 확장성(Expandability)이 통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는것이다.

오직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된 것처럼, 오직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이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통성경의 ‘포용성’과 ‘확장성’을 잘 수용하여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의 실천통로가 되어야 할것이다.⁵¹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신우회가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매개체)가 되어야 할것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도구)’로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APC 교회에서 MRI 교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APC교회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상징화한 개념인데, 교회를 유인적(Attractional)이고, 명제적(Propositional)이며

⁵⁰ 조병호, *21세기는 통(通)이다*, 174-175. 조병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성경으로 보는데, 이 성경중에서 최고의 정점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있다. 십자가 사건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예루살렘을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표현된 사건으로 본다.

⁵¹ Ibid., 190-192.

식민지적(Colonial)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유인적이란 말은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이목을 끄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고, 명제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보다는 교리나 신조를 전달하기 위한 교회들의 수많은 노력들을 의미하며, 식민지적이란 사람들에게 수동적이고 강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APC 형태의 교회는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교회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않았다는 것이 레너드 스윗의 분석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DNA는 사실상 APC 개념이 아니고 MRI교회 개념이다. 선교신학자로서 레너드 스윗이 강조하고있는 진정한 교회는 선교적(Missional), 관계적(Relational)이며, 성육신적(Incarnational)교회이다.⁵²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교회에게 허락하신 DNA이다.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도 아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선교적 삶을(Missional life)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가심(Going)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는 하나님(Going of motion)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은 선교사이시다.

관계적인 삶(Relational life)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연결과 관계에 집중된다. 우리의 삶은 모두 관계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⁵² 레너드스윗은 그의 저서 “*So Beautiful*” 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선교적(Missional), 관계적(Relational), 성육신적(Incarnational), 이 세가지 요소의 나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비밀은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답다(So Beautiful)라고 하였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들로 보고있다. (2013년 7월 3일 드류 D.min 강의)

존재한다. 진리란 것이 명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전해진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교회의 성육신적인 삶(Incarnational Life)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문화를 이해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교회를 토착화 시켜야 할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문화에 동화되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는가되, 문화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문화 속으로 들어가되, 창조적으로 적응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상문화를 잘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것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예수님은 독보적인 관계의 대가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은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에서 말하는 ‘포용성과 확장성’ 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⁵³

두 개념은 상호 보완될수 있고, 상생(相生)할수 있는 개념이다. 조병호의 ‘통개념(Tong-Concept)이 곧 선교적(Missional)이고, 관계적(Relational)이고, 성육신적(Incarnational)이다’ 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⁵³ Sweet, *스타벅스에 가다*, 182-183. 레너드스위트는 그의 저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에서, 예수님은 비록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대가(大家)이셨음을 강조하면서,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관계를 파는 사업체라고 하였다. 이 시대의 교회는 관계의 복음을 파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곳이다라고 했다.

제 IV 장

프로젝트 실행과정: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의 통성경적용 설문조사 및 평가

설문조사방법

이 장에서는 프로젝트(설문) 연구실행과정이 소개될 것이다. 즉, 연구질문과 연구대상, 견본추출, 연구도구, 자료수집 절차와 제한 등이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다음의 연구질문들은 이 논문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분석하는데 활용한 핵심적인 연구질문이다.

첫째로, 현재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신우회 운영에 대해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또한, 지역교회가 직장신우회 운영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통성경이 직장선교의 동력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실제적으로, 신우회 모임 때 행해지는 통설교와 신우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독큐티가 개인의 영성개발과 직장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선교를 위해 지역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그 실제적인 협력방법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직장선교회 모임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직장선교회 신우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매주 직접적인 만남과 모임을 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직장선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견본추출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8년간 직장선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우회를 선별하였다. 먼저는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원들과 김해서부경찰서 신우회원들을 견본으로 잡고, 이 두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50 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로, 신앙생활을 한 연륜에 차이가 있기에,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도구

이 연구는 설문지방식을 사용하였다. 직장선교회의 상황파악, 지역교회의 관심도, 통성경이 직장선교 동역화(Empowering)에 얼마나 역할을 감당하였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신우회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직장선교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점이나 제안할 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하였다.

자료수집절차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 직장선교회에 직접 참여하는 신우회원들에게 직접 의뢰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문에 잘 응답해 주었다.

자료수집제한

이 연구는 주로 설문지 작성에 의존하였다. 설문지 형태가 가지는 장점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수치로 통계하기에 수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문지 문항으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측정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수집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음을 미리 말해둔다.

설문지분석 및 평가

이 장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 경찰직장선교회 신우들의 응답과 그에 따른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 35 명과 김해서부경찰청 신우회 15 명이다.

연구분석 1. 현재 직장선교회에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지역교회의 관심도에 대한 연구이다.

직장선교회 회원들은 신우회 모임의 필요성이 어떠한가의 질문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서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신우회 모임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경건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자칫 직장생활 가운데서 게을러지기 쉬운 말씀과 기도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서의 반대와 과중한 업무관계로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주중에 진행되는 신우회는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표 1> 신우회원들의 직장선교회에 관한 필요성 조사

내 용 항 목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다
응답수	27	23	0	0

내 용 항 목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다
백분율	54%	46%	0	0

직장신우회원들의 직장선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신우들 중에 54%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46%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직장생활 가운데 신우회 조직과 모임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2 번째 질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가

내 용 항 목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면된다	직장신우회도 열심히 해야한다	업무가 우선이므로 시간나면 참여한다	기타
응답수	0	30	20	0
백분율	0%	60%	40%	0

2 번째 질문은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0%에 해당되는 신우들이 직장신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경찰청 신우회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신우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직장선교 활동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고, 열심을 가진 분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 번째 질문에 의외의 응답이 나온 점도 눈 여겨 볼만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응답자 중에서 40%의 신우들이 직장업무에 중요성이 우선이므로, 업무수행 이외의 시간이 날 때, 신우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는 현재 신우회원들의 신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관으로서의 의무감이 투철하기에 나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먼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국가적 사명감이 우선이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도 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측해볼 때, 신앙의 연륜이 초신자일 경우 이런 형태의 응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 3> 직장에서 개인영성과 선교활동이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내 용 항 목	개인열심부족	개교회중심신앙	업무와 엄격한 상하구조	반기독교 문 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신우들
응답수	19	7	21	2	1
백분율	38%	14%	42%	4%	2%

3 번째 질문은 직장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장 내 업무의 과중함과 엄격한 상하구조가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인 열심의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로 나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찰관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구조는 조직 내에 불가피한 상하구조를 형성하게 되어서, 주일성수를 비롯 각종 종교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 내지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인업무 완수가 개인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보다 앞서야 된다는 사회적인 관념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 나온 개인적인 열심의 부족문제는 각자의 결단과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개인의 열심히 부족한 것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직장선교의 필요성을 심어주고, 직장선교를 위한 신학적 근거들을 제시해 줌으로서, 직장선교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대적 사명인지를 지속적으로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장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순간 선교적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반기독교적인 직장문화는 2%와 직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신우들은 1%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는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성숙, 훈련의 문제가 훨씬 크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표 4> 개교회 목회자들의 직장선교에 관한 관심도 조사

내 용 항 목	많은 관심이 있다	조금 관심이 있다	관심이 거의 없다
응답수	18	11	21
백분율	36%	22%	42%

신우회원들이 매 주일날 출석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직장선교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36%가 나왔고, 관심이 조금 있다가 22%로 나왔고, 거의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정도는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목회적 관심과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절반 정도는 개인구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원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표 5> 출석교회 설교와 신앙훈련이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내 용 항 목	매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응답수	17	21	12
백분율	34%	42%	24%

현재 경찰직원 신우회원들은 매주 목요일에 주중 신우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한 매주일 지역교회에 일원으로서 주일예배를 참석하고 있다. 5 번째 질문은 현재 신우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듣고 있는 설교와 신앙훈련들이 직장선교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 76%정도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24%는 부정적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보면 주일출석교회에서의 예배와 신앙훈련이 실제적으로 직장선교 활동의 동기부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한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우들이 매주일 참석하고 있는 개교회 목회자들 중에 경찰청 내지는 23 개 예하 서에 경목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개체교회 목회자가 경목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설교시간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내지는 상담가운데 직장선교에 중요성에 대한 도전과 훈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연구분석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직장선교라 흩어진 교회의 사역이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한바 있지만,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는 그의 저서 *흘어지는 교회*에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형태가 기본이지만, 동시에 흘어지는 교회의 형태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교회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사도적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교회가 개인적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명형태를 유지하고, 기독교회의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구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표 6> 직장사역이 흘어진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용 항 목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해본 적 없다.
응답수	40	5	5
백분율	80%	10%	10%

6 번째 직장선교사역을 흘어진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신우가 80%에 이르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우들중 대부분이 직장선교사역이 모이는 교회 사역을 넘어서, 흘어진 교회 사역이라고 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검토해본 결과,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 신우회원들이 통성경 설교와 큐티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를 통으로, 신앙과 생활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제시된 두번째의 연구질문의 큰 주제가 직장선교활동의 동력화(Empowering)에 있어서 통성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질문인데, 특별히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직장선교회에서 통성경신학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다.

<표 7> 직장선교회 성장(활성화)을 위해 가장 강조해야 될 일은

내 용 항 목	개교회생활	신우회 친목활동	신우회 예배참석	성경공부 기도회	직장전도 프로그램
응답수	4	7	27	8	4
백분율	8%	14%	54%	16%	2%

7 번째 질문은 직장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신우회 예배가 단연 54%로 가장 높았고, 신우회 성경공부와 기도회가 16%로 그 다음이 이었고, 신우회원들간의 친목활동과 교제가 14%, 마지막으로 개교회생활 충실과 직장전도 프로그램 운영이 4%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하면, 이런 영성적 기반 위에 교제와 나눔, 전도프로그램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흥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잦은 출동과 야근, 과중한 업무의 중압감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비록 개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개교회내에서는 직분자로서 건실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정작 직장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직원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8년 경목사역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다.

마치 아합왕 시대에 궁내대신으로 살았던 ‘오바다’라는 인물처럼,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지고 가는 신우회원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울적이 많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신우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밖에

없음을 목회자로서 깨닫게되었다. 그래서, 신우회 예배시간마다 선포하는 통성경(Tong-Bible) 설교는 신우회원들의 지친 영혼과 육신에 새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고 있다. 다른 모임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경찰청교회 사역이나 신우회 부흥을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사역’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표 8>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 모임이 잘 활성화 되고 있는가

내 용 항 목	매우 잘되어가고 있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수	16	34	0
백분율	32%	68%	0%

8 번째 질문은,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 모임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잘되어가고 있다’ 라는 응답이 32%,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68%로 절대 다수의 신우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신우회 모임이 주중에 한번 신우회 예배나 교제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지, 경찰청 전체에 신우회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우에는 신우회 예배가 주중예배 형태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청교회가 독립적인 교회로 개척되어서, 주중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기도회, 직장소그룹 모임까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되어 전임사역자들의 사례도 자체헌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성장해 있다. 앞으로 직원신우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신자 확보를 위해서 전도의 불이 일어나야 하고, 재정적으로 외부지원만을 의존하는 형태를 탈피하여서,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

<표 9> 직장신우회 예배가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가

내 용 항 목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수	44	6	0
백분율	88%	12%	0%

9 번째 질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직원신우회 예배가 신우회원들 개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88%의 신우들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12%가 보통이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실제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담임목회자로서 신우들이 예배시간에 찬양 드리고, 설교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가 많았다. 본인은 경찰청 사역뿐만 아니라 창원기쁨의 교회 소속목사로서 일반교회 목회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중인데, 목회자 개인적인 판단일수 있지만, 개교회 예배나 모임을 인도할 때보다 직장신우회원들의 예배나 모임가운데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과 거룩한 열정들을 훨씬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마도 같은 직업/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합체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직장신우회 이기 때문에, 회원들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과 동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찬양콘티를 짤 때에도 회중요구나 관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이나 접근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표 10> 직장신우회 예배에서 통설교가 개인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내 용 항 목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수	44	6	0
백분율	88%	12%	0%

10 번째 질문은 현재 직원신우회 예배가 선포되고 있는 통설교말씀에 은혜가 되고, 개인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88% 해당되는 신우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해주었다.

이런 결과에 목회자이자 한 설교자로서 엄청난 보람과 동기부여를 받는다. 신우회 예배와 모임가운데 신우회원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설교’ 이다.

한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경찰조직 생활가운데 있다고, 일주일에 한번 신우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감동, 치유와 비전을 발견한다는 신우들이 대부분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목회자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목회를 어떤 기교나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나님과 목회자와 회중(신우회원)간에 삼각관계성의 관점을 바라볼 때, 신우회원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는 느낌이 든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부터 신우회원들에게 ‘통설교’ 의 개념과 기존 설교와의 차별성을 종종 가르쳐왔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전체와

부분을 통으로’, ‘세상과 교회를 통으로’, ‘성경과 문화를 통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키워가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개교회를 넘어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통설교에 대한 집중도와 효과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통독큐티가 성경통독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내 용 항 목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수	20	23	7
백분율	40%	46%	14%

11 번째 질문은 통독큐티가 직원신우회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확대시키고, 개인적인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40%가 ‘매우 그렇다’, 46%가 ‘보통이다’, 나머지 14%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런 결과는 위의 10 번째 질문에 통설 교를 통한 호응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석해본 결과, 통설교인 경우는 설교자의 준비도, 전달력, 회중의 반응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데 반해서, 통독큐티인 경우는 신우회원 개개인이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개인열심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직원신우회원 가운데 신앙의 연륜과 큐티실습훈련 정도에 따라서 큐티호응도와 효율성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신우회는 과거에는 도서출판 GT에서 나오는 큐티를 수년간 사용해 왔는데, 강해형태 큐티이면서 다양한 선교정보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큐티라서, 새신자들이랑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호응도가 좋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통독큐티는 매일 성경읽기(통독훈련)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점과 매일 하는 큐티의 내용이 본문통독을 위한 개론서 개념으로 집필되었기에, 신우들의 신앙수준보다 다소 높다는 평가와 매일 성경통독 분량을 채우기가 힘들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은 비단 경찰신우회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예견된 평가라는 판단이 들면서, 통독큐티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점이라는 목회적 판단이 들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묵상하고, 분석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통(Tong)의 관점으로도 보는 훈련이 병행해야 함을 느낀다. 부분과 전체를 통으로 볼수있는 관점이 통성경 강점이다.

<표 12> 통성경설교를 통해서 직장선교에 대한 도전과 필요성을 깨닫는가

내 용 항 목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수	38	12	0
백분율	76%	24%	0%

12 번째 질문은 직원신우회 예배 때 선포되는 통설교를 통해서 신우회원들이 직장선교에 대한 도전과 ‘전도해야 된다’ 는 필요성을 절감하는가 라는 질문에 76%가 ‘매우 그렇다’ 라는 응답을, 24%가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최종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구원”이 아닌가? 다양한 형태의 목회와 목회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결국, 목회의 최종목적은 ‘영혼구원과 예수제자화’¹ 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 할지라도 설교적 기능이 개인영혼 구원과 위로와 안식을 주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되고, 회중들이 그 설교를 들음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선교적 비전’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설교적 기능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2014년 가을부터 경남지방경찰청 예하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신우회를 섬기게 되었다. 지방청에서 발령받아 경찰서로 이동한 한 신우회원과 신우회 예배를 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평균 10여명의 신우들이 매주 금요일 점심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떻게 1년 만에 직장선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물어본 결과 ‘설교말씀’이라는 신우회원들의 평가가 있었다. 여기서, 다시금 통성경이 얼마나 직장선교 동력화(Empowering)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성경설교와 성경통독을 통해서, 신우들의 개인영성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직장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의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만한 소통과 포용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¹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보급화에 큰 기여를 한 옥한흠 목사는 그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말하기를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평신도를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13-1> 신우회원들이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전도해 본적이 있는가

내 용 항 목	전도해본적 있다	전도해 본적이 없다
응답수	27	23
백분율	54%	46%

<표 13-2> 직접 전도한 새신자가 지금 신우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내 용 항 목	현재 출석하고 있다	현재 출석하고 있지 않다
응답수	15	35
백분율	30%	70%

위의 13 번째 질문은 2 가지 형태로 질문한 것에 대한 직원신우회원들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우회 활동 중에 실제로 전도한 경험이 있다에 54% 응답이 나왔고, 46%가 전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나왔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직접 전도한 새신자들이 현재 직원신우회에 잘 출석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30%가 잘 출석하고 있는 중이고, 70%는 출석하고 있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왔다.

현재 신우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신우회원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신우회원들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신우들이 현재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으며, 전도한 새신자들 중에 30%정도의 신우회 정착율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것은 결코 한국교회가 전도정착율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앞으로, 통성경을 통한 설교와 통독훈련이 전도마인드 고취와 열정을 불어넣기에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²

그리고, 세 번째의 연구질문은 큰 주제가 직장선교를 위해 지역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그 실제적인 협력방법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목회자로서 지역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평신도들인 직원신우회원들이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직장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 14> 직장선교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회들의 역할이 필요한가

내 용 항 목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응답수	32	18	0
백분율	64%	36%	0%

14 번째 질문은 직장선교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회들의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4%가 ‘매우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36%가 ‘조금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현재 직원신우회원들이 지역교회나 지역목회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선교라는 분야는 직장 내에서만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아니다. 직장선교가 활성화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선교적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직장과

² 강정원, *뒷문없는 교회이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12. 건강한 교회개혁과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강정원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교회의 새신자 정착율을 기존에는 12-15%로 보고있는데, 실제로 3% 정도 정착율을 보는 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말한다.

지역교회” 간에 긴밀하고도 원활한 관계성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15 번째 질문은 단답형이 아닌 주관식 문항인데, 직장신우회 모임활성화를 위해 개선점이나 제안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응답이 주로 나왔다.

- 1) 경찰청 예배당 건립의 필요성
- 2) 관내 23 개 경찰서 경목회/타서 신우회와 연합의 필요성
- 3) 신우회 모임시간 확대의 필요성
- 4) 신우회 선교후원금 확보의 중요성
- 5) 말씀양육과 중보기도회 운영의 중요성
- 6) 불신 직원들과 소통과 섬김의 중요성

15 번째 질문에 대한 신우회원 각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한 결과를 평가해보면, 신우회원들 영적수준과 목양적 돌봄의 중요성 내지는 연합사역을 위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협소한 사무실에서 드러지는 예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예배당 건립을 위한 의견, 지방경찰청이 경찰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관내 23 개 경찰서랑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으로 서로 연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주말사역보다 주중사역 위주로 신우회가 진행되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많지만, 이러 외적인 부분들로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교인들 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교회는 교회가 속해있는 세상과 통(通)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V 장

연구프로젝트 결과분석

총 15개 항목을 가지고 실시한 연구프로젝트지만, 그 핵심적인 연구주제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직장선교회가 과연 직장 속에서 필요한가? 나아가서, 신우들이 주일마다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직장선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것과 조병호의 통성경이 얼마나 직장선교회원들의 개인영성 개발과 직장신우회의 동력화와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 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선교 확대를 위한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주제였다.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도출된 결론이다. ‘직장은 더이상 선교사각지대가 아니라, 직장이 곧 선교지이다’ . 직장은 어느 선교지보다 중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다. 하루 24간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 직장은 선교의 황금어장이다’¹.

연구자료를 통계해보면, 현재 창원지역교회와 지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42%정도가 직장선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직장선교 필요성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교회에서

¹ 이대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192-194. 이대근은 그의 논문에서 우리사회의 최소단위 조직을 ‘가정’과 ‘직장’으로 보는데, 특히 직장은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직종 및 계층이 있음을 말하면서, 직장에 속하지 않는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행해지는 전도폭발운동, 새가족초청전도잔치, 소그룹전도등은 지금까지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선교적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개인전도든지 지역선교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지만, 선교의 새로운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선교’에 대한 마인드 고취와 실천이 영혼구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통성경(Tong-Bible)을 바탕으로 한 통설교는 신우회원들에게 설교의 신선함과 성경과 세상을 통전적 볼수있는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직장을 선교지경으로 해석하는 선교적 발전을 이루었다. 통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바라보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모세 이야기와 예레미야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바울 이야기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직장과 교회간의 장벽을 무너뜨릴수있는 최고의 선교도구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지역교회(local church)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직장과 조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기독교인들만 다니는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는,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이 곧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적인 성례전이 행하여 지고,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와 사랑, 기도와 헌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된 교회’이다.²

² R. Paul Stevens,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 IVP, 2001) 11-27. 폴스티븐스는 ‘한 백성의 신학’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한 백성에 관한 신학은 성직자 중심도, 평신도 중심 신학도 아니다. 우리가 정립해야할 새로운 의미의 성직주의, 곧 기능상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직원들 간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직장에서 행해지는 성경공부와 성경통독을 통해서, 신우회와 직장동료들간의 소통의 길이 열리면, 세상복음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³

차이를 제외하고는 차별이 없는 한 백성, 기존의 성직주의를 초월하는 한 백성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³ William M. Easum, *The Church Growth Handbook*, 안승철 역. *교회성장핸드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3-62.

제 VI 장

결 론

요약 및 평가

본 논문을 통해 연구자가 강조하고자한 주된 내용은 통성경(Tong-Bible)이 직장선교의 동력화(Empower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장기간의 영적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과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2장에서는 미래목회의 대안으로 직장선교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다. 직장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선교적 개념정리를 하였다. 직업에 대한 구약성경의 개념이 어떠한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선교관,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종교개혁 이후 평신도 신학의 대부로 알려진 헨드릭 크래머(Hendrick Kraemer)나 윌리엄 댁커(William Danker), 칼라너(Karl Rahner)등과 같은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끝으로, 현대 선교신학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도 해보았다.

직장은 단지 성도들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터전으로서만 아니라, 직장이 예배처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현장이 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이루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한다.

제3장에서는 통성경(Tong-Bible) 신학이 직장선교 활성화(Empower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데, 먼저 한국근대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한 영적회복과 교회부흥, 나아가 민족독립과 근대화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 핵심개념인 제사장 나라/하나님 나라/그의 나라(A-THE-HIS KINGDOM)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 보았다.

제 4장에서는 연구프로젝트 과정으로,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 그리고 창원방법순찰대 신우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본 설문조사는 총 15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지만, 그 핵심적인 조사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의 직장선교회의 상황과약 질문과 지역교회의 직장선교 관심도 파악, 통성경이 직장선교 동역화(Empowering)미친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신우회원들이 직장선교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제안점을 기술함으로서, 직장신우회에 대한 관심도와 열정을 높여보고자 노력하였다.

과거의 성경해석과 설교방법, 선교신학과 선교방법론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단편적이고 분석적 성경해석’ ‘일방적 선포와 연역법적 성경해석’ ‘지역교회의 성장우선주의’ ‘목회자중심의 주일목회’ 등이다. 그러나, 21세기는 목회신학뿐만 아니라, 선교신학에서도 패러다임(Paradigm)¹의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 미래교회 성장과 선교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석과 직관의 통합적 자세’ ‘쌍방향통화와 통전적 성경해석’ ‘지역교회와 직장선교회의 연합모색’ ‘평신도중심의 주중목회’ 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시대 도래하고 있다.

연구자는 통성경신학이 성경신학 뿐만아니라 선교신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¹ 패러다임(Paradigm)이란 말은 헬라어 파라디그마(paradigm)에서 유래한 것으로 실제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유형이나 사고지도, 혹은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다.

전환을 위한 미래목회적 대안² 으로 아주 효과적인 선교방법론이라고 본다.

결론 및 제언

한국개신교회 130 여 년 역사 가운데 현재가 가장 교회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들을 한다. 한국교회 교세에 대한 거품이 제거되고, 상당히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서, 한국교회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³

교회미래학자 최윤식은 그의 저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라고 말한다.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벼랑 끝에선 한국교회” 로 표현하고 있다.

2005 년에 시행한 인구주택조사 결과에서, 기독교인을 870 만(18.7%)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대략 150~250 만 정도를 이단으로 추산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숫자는 2005 년 기준으로 볼때 620~720 만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최윤식은 2040 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인들 수는 전인구의 10 분의 1 로 줄어들 것이며, 교인들 중의 3 분의 2 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5 세 이상 은퇴자로 구성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교인들 숫자가 400 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내지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² 장성배, “직장선교를 위한 교회구조의 갱신”, 201-204.

³ 교단별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 13만 7808명 감소했고, 감리교회는 7만 1477명이 감소했고, 예장고신은 8315명이 감소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기장)는 7898명이 감소했고, 예장합신 2393명, 예장 통합 1619명까지 더해 도합 22만 9510명이 감소했다. (2013년 12월통계).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적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과 지탄에 대해 목회적 판단과 해석, 그리고 교회적 대응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생각한 한국교회 미래목회를 위한 대안으로 직장선교신학 정립과 직장선교회 활성화이다.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 및 감소원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선교론”이다. 지금까지 교회론은 ‘모이는 교회’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선교사명에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 것이 문제였다. 이제, 더 이상 ‘모이는 교회’만 되어서는 안되고, 모였으면 다음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선교적인 뜻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흩어지는 교회’의 실제적인 대안과 모습이 바로 ‘직장선교’ ‘일터교회’라 생각한다.⁴

이제부터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로 와보라’가 아니라, 기존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자’라는 생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선교한국 1세기는 교회를 통해서만 성장하였다면, 이제 선교한국 2세기는 직장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총체적 문제인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⁵

한국교회를 부패와 무능력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진정한 개혁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이제 예배가 주일날만 참석하는 지역교회(Local church)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예배는 성도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 곧 예배처소다. 예배는 먼저 가정에서 드려져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도 드려져야 하고, 나아가서 지역교회에서도 드릴수있는 전방위적인 예배가 이루어 질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실제적으로

⁴ 박영창, “직장선교의 신학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04-105.

⁵ 이대근,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193-194.

‘직장신우회(일터교회)’ 형태로 이루어 지고있는데, 지역교회는 직장인 성도들을 직장사역자 혹은 직장선교사⁶로 양육시켜 파송해야할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도 ‘소통과 통합’ 을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하나님 선교(Missio Dei)’라는 측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직장과 지역교회 사이에, 주일과 평일 사이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소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 부흥과 직장선교의 부흥은 함께 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이며, 동역자요, 동반자적인 관계로 상호보완(補完)하며, 상생(相生)하는 ‘복음 안에서 두 날개’ 와 같은 조직인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와 직장’ 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놀라운 부흥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미래적 선교대안인 ‘직장선교의 활성화’ 를 위해서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 이 아주 훌륭한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성경을 통한 설교의 부흥과 성경통독의 극대화는 한국교회의 쇠퇴하고 있는 영적인 동력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통성경이 한국교회의 선교적 동력화를 이루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조병호의 통성경신학의 최대장점을 꼽는다면, ‘포용성(Receptivity)과 확장성(Expandability)’ 이다. 통성경 선교신학은 ‘세상(직장)과 교회를 통으로’ ‘성경과 문화를 통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를 통으로’ 해석하는 선교적 지경을 넓혀가는데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⁶ Stevens, Paul. *The Equipper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서울:IVP, 2001), 127-130. 폴스티븐스는 그의 책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평신도의 사역은 성경교사, 소그룹리더, 평신도 설교자, 양육상담자, 예배인도자 등의 역할을 하였지만, 흩어진 교회에서 평신도의 사역은 직장사역자, 이웃전도자, 결혼 및 가정사역자, 상담가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말로, 통성경(Tong-Bible)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매 시대마다 ‘제사장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과 같은 직장(일터)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또한, 주일마다 참석하는 지역교회와 평일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장(신우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재현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확산을 이루는 최고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직장은 매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이며, 직장은 매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불신자들에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의 자리’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⁷

조병호의 통성경(Tong-Bible)은 불신자들조차도 복음되신 예수그리스도를 경험(Experience) 할수있게 만들고,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Participation)하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미지(Image)를 만들게 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직장을 서로 연결(Connection)시켜주는 최고로 아름다운 연결고리(Bridges)인 것이다.⁸

이런 의미에서, 통성경은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말하는 MRI 교회(Missional, Relational, Incarnational church)를 이룰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되고, 에픽인생(Epic life)을 이루는 최고의 선교적 도구이다.

⁷ 이상엽, “직장선교에 관한 연구,” 224-225.

⁸ 레너드 스위트는 성경을 읽는 독자가 예수님의 말씀가운데서 경험적인 면, 참여적인면, 이미지화된것, 관계적인 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방식은 에픽(Epic)설교여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분리된 세상속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진리(embodied truth)를 담고있는 비밀스러우면서도,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였다. (2013년 11월 25일 드류 D.min 강의중)

통성경(Tong-Bible)은 하나님과 인간을, 교회와 세상을, 나와 너를 우리로 묶어주는 통로(Channel)이자, 길(Way)이다. 통성경(Tong-Bible)은 지금도 힘들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장(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직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God’ s gift)’ 인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 (세) 성별(남/여) 교회직분()

신우회활동 횟수 (년)

다시 한번, 정성껏 기재해 주신 신우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Ⅱ. 설교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구자의 통성경 연구에 대한 근본목적은 ‘통성경이 일반적인 지역교회에서 전도사역 뿐만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수도 있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직장선교신학의 성경적 토대가 될수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경찰선교라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8년간의 경찰선교사역을 하면서, 조병호의 통성경은 수많은 영역에서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발휘한 부분은 ‘통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 였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다.

이런 판단은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경찰신우회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지 조사에서도, 평소에 나누었던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도 발견된 부분이다.

경남지방청 기독교경찰들은 신우회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통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회심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개인의 변화와 영성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교는 개인적인 영성개발만 아니라, 직장선교에 대한 필요성, 전도에 대한 영적동기를 제공하였다.

기독교경찰관들이 신우회 예배를 드리고, 통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직장이 생업의 현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장소이자, 다른 직장동료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의 현장’ 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동기유발과 동력화는 거듭 말하지만, “통설교” 였다. 신우회 예배때의 설교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보는 관점, 교회와 세상을 통으로 보는 관점, 복음과 직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 승화되고,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필요한 해석적 방법과 삶의 적용, 각성과 결단,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아주 다각적으로 준비했고, 설교 또한 열정적으로 선포해왔다.

연구자는 신우회 예배 때 선포하였던 수많은 설교 가운데, 경찰신우들로 하여금 직장생활의 애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수 있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위기를 소통과 연합으로 승화할수 있었던 치유의 말씀, 특별히 직장선교 필요성에 있어 영적도전을 제공한 설교를 소개해본다.

직장신우회 설교예제 1)

말씀: 열왕기상 18장 1-15절

제목 :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직장선교사

도 입> 2010년 통계청통계를 보면, 15세 이상인구가 4,045만 명중에 임금근로자가 1,662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2015년 현재를 고려하면, 대략 1700만 명 정도가 직장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 1주에 44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

그럼 이 가운데 크리스천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를 약 86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40만 정도가 기독직장인들이라고 한다. 1/4에 해당되는 숫자로, 약 25% 기독직장인들이 75%의 불신자직장인들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하면서 하루의 1/3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설교시간과 성경공부 시간 때마다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 선교적 사명”에 대해 교육, 훈련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시간이 1/3이고, 가족들과 보내고 개인여가시간 1/3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독직장인들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직장 안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기독직장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터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무에 시달리고, 또한 무한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선교적 사명은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교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도전하는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함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국기독교 역사가운데, 최초의 직장인 선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 벽산그룹이 1956년 영화상영관인 단성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이 구조적으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알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아침에 사내예배를 드리면서, 최초의 직장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경찰조직에서는 ‘1994년에 경찰기독교신우연합회’가 창설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연합회 형태이고, 이보다도 몇 년정도 앞선 1990년도에 경찰조직 내에 경찰선교회와 경목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매일 근무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1990년에 경목회와 교경협의회가 시작되었고, 지난주 2015년 경찰선교대회를 열게 된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전 개> 저는 2007년 4월부터 경남지방경찰청교회 담임목사로서 경찰신우들을 섬겨오면서, 신앙과 생활 모든 면에서 우리 직장신우회들에게 훌륭한 신앙적 롤모델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가운데, 바로 분열왕국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시절 왕궁말은자로 살았던 오바댜가 정말 귀감이 될만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신우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시대의 오바댜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기독교직장신우회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판을 치고, 풀통우상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던 시대였지만,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있는 동안, 일하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작지만 위대한 선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라.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북왕국 7대왕 아합왕시대에 왕궁말은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바댜는 권력구도에 있어서 상당한 고위층에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오므리왕조의 핵심과도 같았던 아합왕시기를 북이스라엘이 고대근동사회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에서 ‘왕궁을 맡은 자’라는 의미는 거의 지금의 총리나 경제부총리와 같은 권력의 실세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다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겪고 있었던 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는 세상온천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이를 거역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날에는 반역죄에 해당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통치시대 였습니다.

그런데, 상상해보십시오. ‘아합왕을 최 측근에서 보필하고, 왕궁의 실무를 맡은 자요, 또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겠습니까?’

아합왕과 왕후 이세벨은 완전우상숭배자가 아닙니까? 왕상 16장 31-33절에 보면, 아합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한번 추측해보십시오. 명색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시도때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놓고,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위급 신하로서 그는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갈등과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엄청난 “굴욕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13여 년간을 도피생활을 할때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놈인척” 했던 것(삼상 21장 10-15절)과 다윗과 흡사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약 100연연전의 있었던 사건처럼 말입니다. 아합왕이 BC870정도의 인물이었고, 다윗이 BC1010-970년까지 즉위해 있었으니까, 100여 년 전 다윗 왕도 오늘 오바다처럼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기 위한 자의 굴욕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하지, 뭐 하러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고 있냐? 그것이 더 비굴하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

고, 단편적인 시야만으로 시대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시대에,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적진을 향해 달려버리기만 한다면, 아마도 기독교의 씨는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순교도 필요하지만, 생존도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바다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굴욕적인 현실이지만 기필코 살아서 건재해야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한 7000명의 순결한 하나님의 종/전사들” 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오바다는 서술이 시퍼런 아합왕과 이세벨 시대에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의 생존” 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 실로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장본인 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오바다의 삶이 “진정한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산자” 가 아니었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은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고난의 현장, 어찌 보면 “마치 지옥과 같은 죽음의 현장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생존해 있습니다. 오바다가 아합왕앞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모욕을 우리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Survival is Mission” (생존이 곧 선교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각자의 직장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 직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아합왕 앞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우리의 직장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기독직장인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직장선교사의 소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분이시지? 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어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선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라는 일(노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옛세 동안 창조사역을 하시는 중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심으로(창 2:7),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땅, 에덴동산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삯은 사망인지라(롬 6:23),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죽을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롬 3장 23-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사역)을 담당하셨던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구속의 일(사역)을 담당하셨던 일하시는 예수님이셨음을 성경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다되어가는 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일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대인들의 뜻 모를 박해 앞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 5: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는 예수님 이심을 알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자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일하는 성도, 일하는 직장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본래적인 일, 곧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 목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봅니다.

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곧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직장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장소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사망을 향해 쫓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 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선교사, 곧 일터사역자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사회 모든 부분이 곧 하나님의 일터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신우회 설교예제 2)

말 씬: 로마서 12장 1-2절

제 목 : 에스프레소 교회(Espresso church)로 나가라

도 입> 지금 세상은 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의 변화속도가 과거의 50년의 변화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라라고 예언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 나로호 발사가 고무 링 부품 고장으로 한달 정도 연기된다고 하지만, 지난 50년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보다 앞으로 5년 내에 한국은 우주항공산업의 큰 획을 긋는 나라가 될 것이라라는 국내외적인 전망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가? 여러분은, 낙관적으로나 희망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으로 보는가?

20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사무총장의 말인데. “지난 5년 동안 3000교회가 폐쇄되었고, 156만 명의 성도가 감소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미 서구교회에서는 기독교회의 정체를 넘어 교회의 몰락을 밟고 있는 곳이 많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럽교회는 이미 박물관이 되었고, 서구교회는 이슬람/이단교회에 매각되어가고 있는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속도 또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더욱 침체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법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해서이다”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 또한 망하게 될 것이다” (조직화/화석화/제도화) 현재 세계의 100대 기업가운데 30년 이상 존속하였던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후지 필름회사가 한때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 되고 말았다. 이유는, 카메라업계에 디지털바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이다.

본 론> 이제는 고정관념(paradigm)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에 적응/예측하는데 걸림들이 되는 고정관념을 깨어야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한 대기업체의 슬로건이다. “마누라 외에는 모든 것을 바꿔라!!!” 정말 무식한 말 같지만, 엄청난 도전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도 현재(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조직이 3곳이 있는데, 공무원/군대/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공직사회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명하게 변했다.

위에 언급한 셋 중에 가장 변화되지 못한 곳이 혹시 “교회는 아닐까?” 라는 조심스런 자평을 해본다. 그렇다면, WHY? 왜 교회에서 변화가 어려운가 이유를 알아보면,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이다.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크리스찬을 위한 곳인가? 아니다. “믿는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교제하는 예배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구원시키고, 제자 양육해서, 다시 세상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파송공동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배공동체만 아니라, 파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믿는 자들만의 공동체만 아니라, 현재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세상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Jesus Story)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곧 교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어떤 선교학자의 말씀에 “우리의 고객은 저 밖의 세계에 있다” 라고 했다. 이제는, 교회가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에 “고객만족” 을 시켜야 때가 온 것이다. “우리들 끼리끼리만 은혜 받고, 즐기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불신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선교전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1)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에스프레소(Espresso)"처럼 되어야 한다. (변화/세상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라)

커피전문점의 메인은 무엇인가? 에스프레소이다. 이 에스프레소를 잘 뽑아내는 사람/샵이 진짜 명품/명장이 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에스프레소” 이다.

여기서, 물을 섞으면 아메리카노, 우유를 섞으면 카페라떼, 크림을 넣으면 카푸치노, 초콜렛을 넣으면 카페모카,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커피를 넣으면 아포카토... 그 외 카라멜 마끼아또 등이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에스프레소는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섞일 때 섞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에스프레소가 사라졌는가? 아니다. 모든 커피의 본질은 바로 “에스프레소”이다. 그렇다. 이것이 에스프레소의 엄청난 능력인 것이다. 변화에는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에스프레소만의 본질/능력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에스프레소가 가진 진정한 능력인 것이다.

도 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십자가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장 23-24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장 12-13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장 16-18절)

적 용> 이제는 교회가 불신자/불신가정을 향해서 선교적인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먼저 접근하고, 프로그램을 개최해야 된다. 안산꿈의교회는 원래 “레포츠교회였다. 스포츠와 레저를 목회/선교현장에 접목시켜서 부흥케 되었다. 그렇다고, 꿈의 교회가 예배가 약화되었는가? 꿈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라. 금요일마다/주일저녁마다 드러지는 파워풀한 예배는 은혜와 감동자체이다. 김포고촌교회도 음악(오케스트라)을 잘 활용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고, 부천성광교회도 이찬용 목사님도 지역사회에 열린 축제/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다. 열려있다고 그들은 예배가 죽어있고, 기도가 식어있는가? 아니다. 더욱 예배와 기도는 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열린 교회, 그들도 마음을 먹으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여와 공감’ 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컨셉이 되어야 한다.

2)무엇보다도 되는 사람/가게/기업/교회/소그룹(목장)/가정에는 “성공하는 이유” 가 있다. 바로, 열정(Passion)이다.

‘성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에는 성공할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나 기업에도 실패할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한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와 자세’ 이다. 성공하는 기업이던지 교회이던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 이다. 열정적인 사람과 공동체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때론 변화의 가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열정인데, 어떤 면에서 열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1.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야 한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배” 이다. 예배의 부흥 없이는 결코 교회의 부흥이 없는 것이다. 예배부흥 없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면, 결국 끝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교회가 변화에 민감하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맨날 모여서 등산가고, 야유회하고, 운동만하고, 음악회 하면, 얼마 동안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배의 열정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영성공동체가 못되고, 친교공동체로만 존재하다가, 재미없으면 사라져버리고 만다” “불신자/새가족 전도를 위해서 항상 열려있어야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모습은 예배자로 서야 한다. “정말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예배의 은혜/축복을 누리라.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라”

그리고, “이 신우회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전도대상자들을 먼저 초대하라. 특별히, 직장신우회의 현장 예배에 노출되다 보면 결국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있다” 전도해서 바로 교회로 출석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낯선 교회문화에 잘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훨씬 복음을 수용하기에 좋은 기회이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소그룹(신우회)이 살아있는 소그룹(신우회)이 되어야 한다.

직장신우회가 존립하려면 2가지 중에 한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론 최고로 좋은 것은 2가지가 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은혜롭던지, 아니면 재미있던지. 2중에 한가지는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신우회 예배와 모임이 재미가 있는가? 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가?” “어떻게 재미있을까? 누군가 맛있는 것 사는 사람, 내는 사람, 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꼭 신우회 회장이나 총무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다. 요즘 사람들 맨날 얻어만 먹고 있지 않는다. 몇 번 얻어먹었으면 자신들도 낸다. 솔직히 새신자들이/세상사람들이 더 그렇다.

신우회원들간에 서로 맛집도 가고, 가까운 산에 단풍놀이도 가고, 함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우회 월례회나 단합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신우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제는 “목회자들만의 리더십”으로 부흥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추세이다. “평신도를 깨운다”의 저자 옥한흠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도 그들의 저서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평신도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흥분하게 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열정적인 사역자요. 열정적인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다” 라고 말이다.

“많은 부흥하는 교회의 핵심에는 헌신적인 평신도그룹”이 있다. 솔직히 평신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학력수준,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접근성, 생활수준 등에서도 이미 앞질러 가지 않는가? 목회자와 일반평신도들과 나이대비 그들의 연봉이나 처우들을 비교해보면, 일반평신도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모든 면에서 선봉에 서고, 목회자들 위주로 교회사역들을 진행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나 조직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하자. 합시다. 왜 안 하세요?” 라고 종용하기 전에 “먼저 할게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

니다. 우리가 내고, 준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이것이 우리 직장신우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목회자 위주에서 평신도 위주로, 주일목회 위주에서 평일 목회 위주로,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신우회를 통해서도 훌륭한 전도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평신도들이나 신우회원들이 목회자들에게 요청할 것은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 을 요청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오직 말씀/설교와 성경공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 신우회원(평신도)인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직장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신우들의 입술에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전도자의 3마디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말이다. 우리 신우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이다.

결 론> 본문에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우리 신우회원들이 온전한 이 세대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의 직장동료들이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전도/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감한 변화/도전”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에스프레소(Espresso)처럼 변화에 빠르지만, 그 본질을 변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에스프레소 교회(Espresso church)처럼 말이다. 복음이 곧 에스프레소 (Espresso)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 Dowing, Crystal L. *Changing Signs of Truth*. Illinois: IVP Academic, 2012.
- Frost, Michael & Hirsch, Alan. *ReJesus*. Sydney: Strand Publishing, 2009.
-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0.
- Son, Angella. *Spirituality of joy*.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2013.
- Stark, Rodney. *The Triumph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2011.
- Sweet, Leonard & Viola, Frank. *Jesus: A Theography*. Nashville: Thomas Nelson, 2012.
- Sweet, Leonard. *So Beautiful*.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09.
- Sweet, Leonard.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Waterbrook Press, 2007.

번역서적

- Blackaby, Henry T. *Called and Accountable*. 최문정 역. *소명*. 서울: 두란노출판사, 2003.
- Bosch, David. *Theology of Mission*. 전재옥 역. *선교신학*.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1.
- Easum, William M. *The Church Growth Handbook*. 안승철 역. *교회성장핸드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Hamilton, Adam. *Leading Beyond the Walls*. 유성준 역. *장벽을 넘어 인도하라*.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 Hokendijk, J.C. *The Gathered and Scattered Church*.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Kraemer, Hendrik. *A Theology of the Laity*, 홍병룡 역. *21 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서울: 아바서원, 2014.
- Niebuhr, H. R. *Christ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Ryken, Leland. *Worldly Saints: The Puritans As They Really Were*, *청교도 - 이 세상의 성자들*,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Stevens, Paul. *The Abolition of the Laity, 21 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14.
- Stevens, Paul. *The Equipper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서울: IVP, 2001.
- Stott, John. R. W.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제자도*. 서울: IVP출판사, 2010.
- Sweet, Leonard. *Out of the Question...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IVP 출판사, 2011.
-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Wagner, C. Peter. *The Church in the Workplace*. 이건호 역. *일터교회가 오고있다*. 서울: WLI Korea, 2007.

한국어서적

- 강정원. *뒷문없는 교회이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김동연. *일터교회-미래구원사역의 뉴패러다임*. 서울: 러빙터치, 2015.
- 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로 살아라*. 서울: 도서출판 치유, 2003.
- 박용호. *존 웨슬리 속회론*. 서울: KMC, 2008.
- 박홍일. *직장선교와 삶의 현장*.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0.
- 방선기. *크리스찬과 직장*. 서울: 한세, 2000.

- 방선기. *크리스찬 직장백서*. 서울: 두란노, 2007.
- 손창남. *직업과 선교*. 서울: 조이선교회, 2012.
- 오성춘.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출판부, 2001.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8.
- 원용일.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서울: 브니엘, 2015.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 이정구. *직장선교(생업현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라)*. 서울: 성광사, 2014.
- 조병호. *21 세기는 통(通)이다*.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성경*.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이다*. 서울: 통독원, 2009.
- 주성훈. *한국선교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1996.

논문, 잡지

- 김성병. “성경교육으로서의 성경통독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 김성욱. “평신도 선교운동의 교회사적 연구.” 32, *세계선교*, 1997, 22-32.

- 박영창. “직장선교의 신학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그리스도신학대학원, 1998.
- 배중수. “교회에서의 직장인 사역의 필요성과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 성기준. “직장 기독교신우회 설교.” 신학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 송영만. “직장신우회를 통한 선교전략(CIC.K 직장신우회).”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 송호길. “평신도 선교: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론.” 2, *복음과선교*, 1998, 135-182.
- 이대현. “도시산업화 시대의 직장선교구조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 이대근. “직장선교활성화를 위한 교회역할에 대한 연구(한국선교문제연구소).”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0.
- 이동근. “교회속의 평신도 훈련을 통한 직장선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 이상엽. “직장선교에 관한 연구.” 2, *성서논구*, 1994.
- 이진철. “평신도 선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직장인선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 장성배. “직장선교를 위한 교회구조의 갱신.” 57, *신학과세계*, 1996.
- 정병한. “새로운 목회적 지평으로서의 직장사역과 그 실천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천영섭.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insuck Lee

Place and Date of Birth: Changwon, South Korea, July.3, 1975

Parent`s Names: Gyundong Lee and Munja L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Changwon High School 58, Daego-ro, Boryeong-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Diploma	Feb. 20, 1987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31, Nangchungdong, Seodaemun-gu, Seoul, Korea	B.A	Feb. 22, 1994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31, Nangchungdong, Seodaemun-gu, Seoul, Korea	TH.M	Feb. 21, 199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insuck Lee

Name typed

May 6, 2016

Date